

문장과 이야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세어를 중심으로—

高 永 根

I. 들어가기—접근방법—

현재 통사론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 볼 수 있다. 전통 문법 아래 주요한 흐름이 되어 온, 문장을 문법연구의 최대단위로 삼는 “문장문법”이 그 하나이고 문법연구의 영역을 문장보다 한 단계 높은 단위인 텍스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문법”이 그 다른 하나이다. 문법의 영역을 문장에 국한시키면 문장의 영역 밖에 도사리고 앉아서 문장의 형성이나 그 의미를 제약하는 언어현상에 대한 설명이 어렵거나 궁색해지기 쉽고 그 영역을 텍스트에까지 넓히면 문장의 테두리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언어현상이 설명될 수 있는 이득은 있으나 언어 외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 많으므로 작업이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른 인접과학, 이를테면 철학, 심리학, 사회학, 통보이론의 연구성과를 언어연구에 받아들이고 이들 영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텍스트를 문법의 영역에 펼어들이려는 노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많다.¹⁾

* 이 논문은 1986년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연구비로 수행된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1984년 흄볼트재단초청으로 독일 보훔대학을 다시 찾았을 때 그곳 하르베크(R. Harweg) 교수와의 의견교환이 큰 힘이 되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1) 텍스트 내지 텍스트언어학의 연구동향과 그 업적에 대한 전반적인 서지목록은 칼페르кам퍼(H. Kalverkämper)(1981)에서 볼 수 있고 1977년부터 베

텍스트(Text)는 흔히 담화(discourse)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전자는 주로 전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쓰이고 후자는 미국에서 쓰이는 경향이 우세하다.²⁾ 그러나 텍스트를 담화와 대립시키는 일도 있어 용어의 선택문제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 필자는 양자가 대립된다는 관점은 취하기보다는 담화를 관찰적인 층위의 단위로 보고 텍스트를 추상적인 층위의 단위로 보아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텍스트”라는 용어만을 일관성 있게 쓰는 흐름을 따르려고 한다.

텍스트가 문장을 뛰어넘는 단위이기는 하나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단순히 문장의 상위 단위로 보는 태도와, 해위이론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일차적인 언어단위로 보는 태도로 그 의견을 좁힐 수 있다. 이젠베르크(H. Isenberg)(1977)에서는 전자를 명제적 견해(propositionale Auffassung), 후자를 동태적 견해(dynamische Auffassung)라 부르고 있다.⁵⁾ 명제적 견해란 텍스트를 문장단위와 같이 불변하는, 시간상으로 분절되지 않는 단위로 간주하는 관점인데 “음운→형태소→단어→문장→텍스트”와 같이 하위단위에서 상위단위로 접근하는 태도에 비겨 볼 수 있다. 한편 동태적 견해란 텍스트를 일차적으로 통보적내지 해위관련의 단위로 이해하며 언어행위의 시간적 분절의 연쇄에 기대어 텍스트가 구성된다고 된다고 보는 관점인데 “텍스트→문장→단어→형태소→음운”과 같이 상위단위에서 하위단위로 접근하는 태도에 비겨 볼 수 있다. <석

률린의 그뤼터(Walter de Gruyter) 출판사에서 축서로 엮어내는 <텍스트 연구>(Research in Text Theory/Untersuchungen zur Texttheorie)에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세 나라말로 그 동안의 성과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선을 보이고 있다.

- 2) 담화를 포함한 텍스트언어학 전반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흐름은 드레슬러(W. Dressler)(편)(1978)를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
- 3) 텍스트와 담화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비타콜론나(L. Vitacolonna)(1988)에 자세하게 종합되어 있다.
- 4) 텍스트와 담화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견해는 고영근(1990)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 5) 텍스트의 정의와 그 접근법에 대하여는 고영근(1990)에서 자세하게 종합·정리된 바 있다.

보상절>과 같은 전기물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명제적 견해보다 동태적 견해가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고 생각하므로 필자는 주로 동태적 견해에 기반을 두어 텍스트를 문장이나 그 이하의 단위로 분석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제적 견해를 원용하는 일도 있을 것임을 덧붙여 둔다. 두 견해를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상보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실제의 작업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법연구에서도 일찍부터 텍스트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바 아니었다. 주시경(1910:37)에서는 문장을 뜻하는 “드”라는 단위 위에 “미”라는 단위를 설정하여 “한 일을 다 말함을 이름”으로 그 뜻을 매기었다.⁶⁾ “미”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텍스트나 담화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비교적 온당하여 보인다.⁷⁾ 그러나 단위 “미”에 대한 서술이 시도되어 있지 않으므로 텍스트를 문법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최현배(1937:979)에서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모여서 한 덩어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한 마리의 글월”(一篇의 文章)은 “월길”(문장론)의 대상은 될 수 없고 “글월같”(修辭學)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그의 “월길”的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최현배의 “글월”은 주시경의 “미”와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문법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그 까닭을 분명히 지적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김민수(1955:146, 1960:39)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볼 수 있다. 그는 가디너(A.H. Gardiner)의 스피치(speech)를 “이야기”(한편의 이야기, 한편의 문장)라 불러 이를 중심으

6) 주시경(1911:39)에서는 “한 일을 다 말하여 길게 된 말을 이름”으로 그 뜻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의 異本을 대교하여 定本 수립을 겨냥한 고영근/이현희(1986:167)을 보라.

7) “미”를 정렬모(1956)에서는 그 어원은 알 수 없으나 “여러문장이 모여서 한편의 설화를 이루는 것을 이름”이라 해석하고 그 장단은 천차만별이어서 한수의 시, 한권의 소설, 한편의 논문 등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론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수사학적, 문체론적, 문학적 연구대상이 될 뿐이라고 하였다. 또 김민수(1986:136)에서는 “미”를 블룸필드(L. Bloomfield)의 발화(utterance)에 가까운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최호철(1989)에서는 주시경의 “미”가 19세기의 영문법학자 Murray의 “담화(discourse)” 내지 “연설(oration)”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로 “글월”, 곧 문장의 분석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글월만이 문법연구의 대상이 되고 “이야기”는 문체론 내지 문학장르의 연구분야라고 문장과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국어문법연구에서 텍스트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간주하여 통사론의 단위에 대립되는 텍스트론을 정식으로 전개한 업적은 강복수(1961, 1962)이다. 이에 기대면 “文章”은 센텐스를 뜻하는 “文”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언어의 최대단위이며 그 성격을 구명하는 “文章論”은 “語論”, “文論”과 함께 문법학의 세 분야를 이룬다고 하였다. 文論이 “文”을 구성하는 단어와 단어의 접속관계를 다루는 것임에 대하여 文章論은 문장의 구성성분인 文과 文과의 의미적 연접관계를 다루는 데 그 임무가 있다고 말하고 文의 연접과 문단의 연접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도끼에다(時技誠記)(1950)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재 나라 밖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텍스트문법이나 담화문법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시경, 최현배, 김민수 등의 문장중심의 문법연구의 태도를 벗어나 국어문법연구의 새로운 마당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 그러나 이런 노력은 국어문법연구에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텍스트가 국어문법의 단위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생성문법이론에 기반 국어문법연구가 정착되고 생성의디론이 들어오기 시작한 70년대 초반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⁹⁾ 장석진(1972, 1973, 1985:25-42)에서는 지시소(deixis)를 설정한 바탕 위에서 “話構”(discourse frame)를 설정하여 국어의 높임법, 문체법, 양태구조를 해석하였으며 정보초점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업적이 계기가 되어 고전문학작품인 심청전과 민담에 대한 텍스트문법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주신자 1980, 1981) 최근에는 60년대 이래의 독일의 텍스트문법이론과 나라 안의 업적들을 발판으로 삼아 현대소설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윤석

8) 최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이루어진 전병선(1989)도 강복수와 비슷한 경향의 텍스트접근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문장과 단락 사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들이 의미 및 구성상에서 긴밀하게 연관된 문장들의 집합체를 “문장군”이라 부르고 그 특징을 논한 바 있다.

9) 생성문법에 기반 텍스트문법적인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는 고영근(1983:172-173)을 보라.

민 1989).

텍스트를 우리말로 어떻게 불러야 할까? “話” 또는 “談話”라고 쓰는 일도 없지 않으나 이는 “discourse”를 연상할 우려가 없지 않으며 “글월, 글, 文章, 문장군”이라 부르기도 하나 이는 書寫的인 자료만 가리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口頭語와 書寫語에 나타나는 텍스트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합당한 용어의 탐색이 절실하다. 필자는 “이야기”라는 고유어를 텍스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이희승(편)의 〈국어 대사전〉(1961)에서는 “이야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1) 남이 모르는 일을 일러 주는 말
- (2)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말
- (3) 경험한 일이나 심증에 느낀 바를 털어 놓는 말
- (4) 어떤 문제를 한 가운데 놓고 하는 이런 말 저런 말
- (5) 어떤 사실이나 또는 있지도 아니한 일을 사실처럼 꾸미어서 재미있게 늘어 놓는 말
- (6) 소설
- (7) 소문, 평판
- (8) 사정하는 말
- (9) 옛날 이야기의 준말

(6)의 “소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두어적 표현에 관련된 용법이다. (1), (8)은 일방적 발화에 가까운 개념이고 (2)는 전형적인 대화를 가리키며 (3)은 독백 내지 독화를 의미하는 것 같고 (4)는 일정한 주제 중심의 토론을 가리킨다. (5)는 허구적 담화를 뜻하는데 그것이 문자로 적혀지면 (6)의 “소설”이 된다. (7)은 떠도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1), (5)와 거리가 멀지 않다. (6)의 “소설”은 다른 뜻과는 달리 서사적인 자료를 가리킨다.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1981)에는 위의 뜻 밖에 “일정한 줄거리로 하는 말이나 글”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구두적 자료뿐만 아니라 서사어적 자료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이곳에는 “이야기”에 문학용어의 자격까지 주고 있다. 신화, 전설, 민담, 동화, 우화, 야담, 재담 등 故事的 구전문학을 통틀어 일컫는다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이야기는 넓은 뜻의 텍스트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말의 “이야기”는 길고 짧은 모든 종류의 말

과 글에 두루 쓰일수 있으므로 텍스트의 뜻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국어는 이론적인 틀에서부터 시작하여 민담, 현대화한 고전작품, 소설에 이르기까지 그런 대로 텍스트, 곧 이야기의 관점에서 그 구조가 분석되어 오고 있지마는 중세국어에 대하여는 아직도 본격적인 분석모형이 제시된 일이 없다.¹¹⁾ 중세어의 중추적 통사자료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악장, 석보상절과 같은 번안산문자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언해의 세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¹²⁾ 이 가운데서 텍스트 분석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것은 번안산문자료인 〈석보상절〉이다. 석보상절은 비록 여러가지 불경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나 어휘의 구사가 구김이 없고 문체가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문법자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가운데의 석보상절을 대상으로 중세어 문장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분석 가능성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필자가 이 글에서 의도하는 바이다. 먼저 이야기의 생성규칙을 설정하고 현대어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통합수단을 확인한 바탕 위에서 중세어의 이야기의 형성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이야기와 문장의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펼쳐 나가기로 하겠다.

Ⅱ. 이야기의 생성규칙과 그 통합수단

1. 이야기의 생성규칙

이야기의 생성규칙은 이첸베르크(1974)에 기대면 다음과 같이 형식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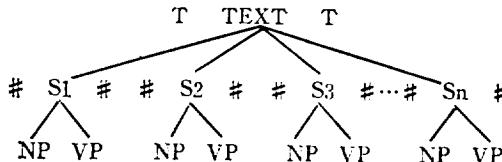
10) 텍스트에 대당되는 개념으로서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통일문법교과서 〈문법〉(1985)에서 도입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실천적 분석은 남기심/고영근(1985:402-408)에서 그 얼개를 보인 바 있다.

11) 필자는 고영근(1981:4)에서 중세어의 문장구조를 텍스트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배운 바 있으며 남기심/고영근(1985)에서 보인 틀을 중심으로 중세국어에서 이야기의 설정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시험한 바 있다. (고영근 1987:330-334)

12) 중세국어의 문법자료에 대하여는 고영근(1987:29-35)를 보라.

(1) a. TEXT → (#S#)ⁿ ($n \geq 1$)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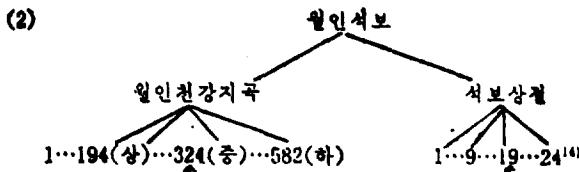


위의 규칙은 문장중심문법의 구절구조규칙과 어휘삽입전규칙과 방불하다. (1a)는 이야기 생성의 기저규칙으로서 이야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으로 성립됨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문법은 이야기와 문장을 동시에 생성한다는 뜻이다. 하나의 자연언어 L은 무한한 수의 이야기로 성립되며 각 이야기는 길이가 유한할 수 있고 적어도 하나의 문장은 포함할 수 있다. 문장은 “명사구+동사구”(NP+VP)로, 동사구는 “동사”(V)와 “명사구”(NP)로, 명사구는 “명사”(N) 등으로 다시 고쳐 쓸 수 있다. 명사에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처음으로 언급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청자에게 알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일반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나에 따라 임의의 지시부호를 붙일 수 있다. (1b)는 (1a)의 기저규칙이 다 적용되고 어휘항목이 채워진 다음에 열어지는 이야기표지(Textmarker)이다. T는 이야기 경계를, #는 문장 경계를 각각 표시한다. 작은 나무 꼬지 부호 S는 그것이 T에 직접 지배된다는 뜻인데 이젠베르크는 이를 “일반화된 P-Marker”라 부르고 있다. (1b)의 이야기 표지는 Sn개의 P-Marker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젠베르크의 이야기 생성규칙이 대명사의 비대용어적인 기능을 표시할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은 바 아니었으나¹³⁾ 석보상절과 같은 전기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보이므로 이야기의 생성규칙으로 이용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석보상절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석보상절이 석가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는 전기물인 이상, 작자 수양

13) 이러한 견해는 이젠베르크(1977)에서 볼 수 있다. 대명사의 비대용어적인 기능이란 발화현장에서 쓰이는 대명사의 상황지시적인 용법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언급은 고영근(1990)을 보라.

대군에 의하여 생산된 석보상절 24권 전체를 가장 큰 이야기 단위로 삼을 수 있다. 한편 석보상절은 월인천 강지곡과 장르는 달리하지마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매적인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두 작품은 세조가 왕이 된 뒤 <월인석보>라는 이름으로써 상당한 내용의 증보를 겪으면서 한 책으로 묶인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석보상절은 월인천 강지곡과 함께 자매적인 이야기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월인석보라는 더 큰 이야기의 하위 이야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관계를 나무 모양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월인석보라는 가장 큰 이야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자매적 관계에 놓여 있는 두 하위 이야기가 먼저 분석되고 다음 단계로 두 이야기를 서로 관련짓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나무 그림의 아래쪽에 두 이야기를 화살표로 연결시킨 것은 두 이야기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가리킨다. 석보상절은 크게 보면 석가의 전기라고 할 수 있으나 세부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독립성을 띤 여러 장르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 작품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더욱이 석보상절 안에는 소설의 성격을 띤 작품들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¹⁴⁾ 이를테면 <仙慧仙人譚>(월인석보 1에 실림), <鹿母夫人傳>(석보상절 11에 실림), <忍辱太子傳>(월인석보 21에 실림), <善友太子傳>(월인석보 22에 실림), <目連傳>(월인석보 23에 실림)과 같은 작품이 그러하다. 이들 작품들은 횡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그 자체로서 자족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테면 <선혜선인담>과 <인육태자전>은 각각 독립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마는 모두 석가

14) 월인천 강지곡의 숫자는 곡의 차례, 석보상절의 숫자는 권수의 차례를 각각 가리킨다. 전자의 194는 권상의 마지막 곡을 가리키고 324와 582는 권중과 권하의 마지막 곡을 권상을 기준으로 가상해 본 숫자이다. 석보상절의 숫자는 현존본의 권수가운데서 임의로 선택한 권수이다.

15) 석보상절의 문학적 성격에 대하여는 사재동(1975, 1985)을 보라.

모니의 전생에 관련된 설화란 점에서 횡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 먼저 각 작품군을 최대의 이야기로 삼아 이를 하위 이야기로 분석해 나가면서 텍스트형성의 機制를 살피고 그 결과에 기대어 다른 작품 텍스트와 관련시키면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론을 택하고자 한다. 앞에서 필자가 크게는 동태적 관점을 취하되 부분적으로는 명제적 견해를 원용한다고 밝힌 점이 바로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이야기 형성의 機制

이야기 형성의 機制로는 통사적 통합수단과 의미·기능상의 통합수단을 들 수 있다. 이야기 형성의 기제는 흔히 “凝聚”(cohes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텍스트 요소가 통사·의미상의 연결수단에 기대어 의미론적인 완결체를 형성한다는 뜻이다.¹⁶⁾ 응집의 선행 조건은 문장이 의미있게 결합됨을 요구한다. 임의의 단어결합이 올바른 문장을 형성하지 못하듯이 임의의 문장 역시 올바른 이야기를 구성하지 못한다.

(3) 오늘은 배가 몹시 고팠다. 따라서 나는 밥을 한 술도 들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이에 상응하여 결과적으로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올바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반대개념의 명제가 됐으므로 올바른 이야기를 이루지 못하였다.

(4) 오늘은 날씨가 몹시 춥다. 그래서 외투를 꺼내 입었다.

(4)는 두 문장이 접속부사 ‘그래서’에 기대어 인과관계의 의미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접속부사에 기댄 이야기의 형성기제가 통사적인 통합수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적인 표현이 생략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 (4)는

(4') 오늘은 날씨가 몹시 추워서 외투를 꺼내 입었다.

와 같이 고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어미에 기대어 문장이 이어지면 이야기와 구별되는 복합적인 문장단위로 처리된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타나는 순접, 역접, 인과 관계와 같은 논리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접

16) 텍스트의 연결수단과 응집의 개념에 대하여는 논의가 많다. 대표적으로 피에베거(1977), 윤석민(1989), 고영근(1990)을 보라.

속부사에 기대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된다. 이러한 접속부사를 논리적 접속부사라 부르기로 한다.

보조사에 기댄 다음과 같은 문장의 연결도 통사적 통합수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 (5) a. 멀고 먼 옛날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하늘나라 사람들을 이끌고 지상으로 내려 왔다. 환웅은 태백산 아래에 신시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 b. 오누이는 빠빨리 나무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5a)는 앞 문장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어명사구 ‘환웅’이 주격조사를 취하였지만 뒤의 문장에서는 그것이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사실 때문에 보조사 ‘은’을 취하였다. 정보의 새로움과 낡음에 기대어 조사가 환치되고 그러한 장치에 기대어 두 문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어 있다. (5b)는 자매항목에 속하는 ‘오누이’와 ‘호랑이’가 보조사를 환치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 뒤의 문장만으로는 완결된 의미를 표시하지 못한다.

이야기 형성의 두번째 기제는 의미·기능적인 등가성이다. 의미·기능적 등가성이란 처음 도입된 대상과 다시 언급되는 대상 사이에 의미·기능상의 공통성이 성립되어 命名的 連鎖(nominative Kette)를 이룬다는 뜻이다.

- (6) a. 영수는 혼자서 집을 지켰다. 영수는 오늘도 소파선생의 작품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 b. 동사무소의 아저씨가 찾아 오셨다. 그분은 우리집에 몇 가구가 사느냐고 물으셨다.
- c. 그들은 잔실히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승을 그대로 놓아 주었다.

(6)은 앞 문장에서 도입된 대상을 의미상의 등가성에 기초하여 뒤의 문장에서 반복함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예이다. “의미상의 등가성”이란 한 문장의 한 요소와 다른 문장의 한 요소 사이에서 성립되는 어휘적 의미의 공통관계를 말하는데 단순반복과 대용어에 기댄 반복은

물론, 상위어, 하위어, 유의어, 반의어에 기댄 반복도 포함된다. (6a)는 앞 문장의 주어명사구 ‘영수’가 뒤의 문장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명명적 연쇄를 이룬 예이다. 단순반복은 이야기 형성의 가장 원초적인 원리이다. (6b)의 뒷 문장에 나타나는 주어대명사구 ‘그분’은 앞 문장의 주어 명사구 ‘동사무소의 아저씨’를 대용함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었다. 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관형사, 지시부사 등의 대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자질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 문장에서 도입된 명사구와 구별된다.¹⁷⁾ 처음 도입된 명사구가 완전한 의미자질의 총화를 나타낸다면 대용어는 부분적인 의미자질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6c)는 앞 문장의 ‘토끼’가 뒤의 문장에서는 상위어인 ‘짐승’으로 대체되어 있다. 이는 하위어와 상위어가 명명적 연쇄를 구성하는 예이다. 이야기의 구성부분 사이에는 하위어가 앞서고 상위어가 뒤에 서는 일이 많으며 그와 반대의 순서를 취하여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일도 적지 않다.

(7) 영철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개울가로 나갔다. 형은 동생을 등에 업고 개울을 전넜다.

(7)의 앞 문장의 주어명사구 ‘영철이’는 뒷 문장에서 ‘형’으로 대체되었다. ‘영철이’와 ‘형’ 사이에는 (6)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어휘적 자질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의미상의 등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철이’와 ‘형’은 훌륭한 명명적 연쇄를 구성하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나 읽는 사람은 앞 문장에 도입되어 있는 관형어명사구 ‘동생’을 통하여 ‘영철이’가 ‘동생’으로 지칭되는 대상의 ‘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자와 청자의 공통된 인식세계나 구체적인 통보상황을 통하여 성립되는 명명적 연쇄를 “기능적 등가성에 기댄 결합”이라고 한다.

Ⅲ. 석보상절의 이야기 통합수단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의 형성 기제를 발판으로 삼아 석보상절이 구체

17) 대용어에 기댄 텍스트의 형성에 대하여는 하르베크(1968, 1978, 1979, 1988)를 보라.

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발판으로 삼아 크고 작은 이야기 단위로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먼저 중세어 문장을 현대어와 비교함으로써 구성상의 특수성을 알아 보기로 한다.

석보상절의 통사자료는 대화와 지문으로 가를 수 있다.¹⁸⁾

(8) a. “兜羅帝 이제 어듸 잇누뇨”(월석 9, 36상)

b. 化人은 世尊へ 神力으로 斎의의 乎 산 사르미라(석상 6, 7-8)

(8a)는 대화의 예로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훌륭장인데 현대어에서 목격되는 이런 종류의 문장유형과 차이가 없다. (8b)는 지문의 테두리에 들어오는 협주문¹⁹⁾의 예로서 역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훌륭장인데 현대어의 뜻풀이에서 나타나는 문장유형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중세어의 통사단위를 이야기로 잡는다고 가정할 때 위의 예들은 바로 이야기가 문장의 단위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화나 뜻풀이의 협주자료는 문장을 최대 단위로 삼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지문자료는 사정이 간단하지 않다. 지문자료에는 큰 글씨로 박은 석보상절의 본문과 작은 글씨로 박은 주석문으로 가를 수 있다. 후자는 특히 월인석보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석보상절의 본문과 큰 차이가 없다. 석보상절의 본문은 그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여 문장 단위의 관점에서 처리해도 좋은 것이 있다.

(9)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 龍과 鬼神과 위호야 說法하더시다(석상 6, 1)

위의 예는 하나의 주어명사구를 공유하고 있는 이어진 문장으로서 현대어에서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문장 유형이다.

그러나 문장종결법을 기준으로 할 때 석보상절에는 하나의 문장이 긴 경우에는 2장 이상 이어지는 일이 있으며 이런 경우 여러 개의 문장을 안고 있는 일이 많아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몇 개

18) 세종 때에 간행된 “석보상절”과, 세조때에 간행된 월인석보 속의 “석보상절”을 구별한다는 의도에서 전자는 <석상>으로, 후자는 <월석>으로 부르기로 한다.

19) 최근 협주문과 주석문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전자는 주로 한자나 한자어의 뜻풀이에 사용되는 문장 양식을 가리키고 후자는 한문의 원문을 번역한 자료를 말한다. 중세어의 협주자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금자(1988)을 보라.

의 작은 문장단위로 끊어야 할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때가 많다.
대표적으로 다음 문장을 검토해 보자.²⁰⁾

- (10) [그의 ①(世尊이 이 양으로 세번 나른샤 眞金身을 大衆 뵈시고 즉자히
七寶師子大床으로 겨샤 虛空에 혼 多羅樹에 노피를 오른샤 나른샤되 “너
희 大衆이 내 紫磨黃金色身을 보라”하시고) ②(이 양으로 漸漸 닐굽
多羅樹 노피를 오른샤 닐굽번 나른시고 도로 師子床에 누려 앉으샤 쪼
나른시니 이 양으로 세번 오른느리샤 두루 모다 스를 네 디위를 大衆두
려 나른샤되 ④“내 涅槃호려 흐노니 너희둘히 기픈 모수므로 내 金剛
堅固不壞紫磨黃金無畏色身을 보라” ⑤“優曇花 罷한야 맛나미 어려보니
너희둘히 至極호 誠心으로 내 紫磨黃金色身을 보라” ⑥“누외야 몰 보
리니 너희 大衆이 玆장 보아 後에 뉘웃봄 업계 흐라” ⑦“나를 減度타
흐면 내 弟子 | 아니며 나를 減度 아 니타 흐야도 내 弟子 | 아니라” 흐
야시늘) ⑧(百萬億衆이 다 아라 듣즈봉니라)](서상 권 23, 10a-12a장)

〈10〉은 〈如來涅槃記〉의 한 대목이다. 큰괄호 안에는 작은괄호 안에 번호를 매긴 바와 같이 3개의 지문 단락이 들어 있다. 각 지문 단락은 연결어미에 기대어 이어져 있는데 ①과 ②사이에는 대등적 연결어미 ‘-고’가, ②와 ③사이에는 종속적 연결어미 ‘-야늘’이 나타나 있다. 현대어 같으면 이 자리에 접속부사 ‘그리고, 그리하여’가 쓰이어 독립된 문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다. 지문 ①에는 명령문 하나만 나와 있으나 지문 ②에는 a~d로 표시한 바와 같이 3개의 명령문과 1개의 평서문이 들어 있다. 그리고 지문 ③에는 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대화의 앞에는 상위의 수행동사 ‘나른다’가 인용의 연결형이 되어 앞서고 끝에는 인용동사 ‘흐다’가 실현되어 있다. 이 문장의 첫 머리에 나오는 ‘그뼈’는 ‘그저기’ 등과 함께 이야기 사이는 물론 문장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절 사이에서도 쓰이는 일이 있어 그 기능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경우의 ‘그뼈’는 그 앞에 ‘그저기’로 시작하는 부처의 대중에 대한 설법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이야기 단위를 이어 주기 때문에 이야기 경계의 가능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들 시간 부

20) 중세어의 큰 문장과 이에 안겨 있는 작은 문장들의 관계에 대하여는 고영근(1987:231)을 보라. 작업의 편의상 위의 책의 예문과 설명을 그대로 가져 오기로 한다.

사의 수식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문제가 된다. 이곳에서는 잠정적으로 예문 (10) 전체에 걸리는 것으로 보았으나²¹⁾ 사정이 단순하지 않다. 한편 문장 ①과 ②에는 ‘이 양으로’와 같은 대용어적 표현이 쓰이었다. 이는 앞에서 도입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이야기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 문장 ②에는 주어명사구가 생략되어 있다. 그것은 문장 ①에 이미 주어명사구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략된 주어를^{e22)}로 간주할 때 문장 ①에서 주어명사구 ‘世尊’과 명명적 연쇄를 이를 수 있다. 문장 ②를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해야 할지 아니면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끊어야 할지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중간에 또 ‘이 양으로’와 같은 대용어적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예 (10)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머리에 두면서 앞서 언급한 이야기 통합의 두가지 원리, 곧 통사적인 원리와 의미·기능상의 원리를 석보상 절의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1. 통사적인 통합수단

A. 논리적 접속부사에 기댄 이야기의 형성

중세어에도 현대어와 같이 두 문장이 논리적 접속부사에 기댄 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이 있다. 그러한 접속부사에는 ‘그러나, 그러면, 그럴时候, 이럴时候’ 등이 있다. 그러나 현대어의 ‘그리고’에 직접 이어지는 형태는 발견되지 않는다.

- (11) a. 諸佛 잘 호시논 이어고 모초니라 그러나 니르샤 妙法이 魏를
 갖고(월석 11, 13a)
- b. 부터 숨利佛드려 니르샤여 “내 아래 아니 니르더니여 …이 마리 다
 菩薩敎化를 위호시논 전처라 그러나 숨利佛아 이제 生醫瞞로 이 뜨
 들 다시 불교리니”(월석 12, 20a)

21) 고영근(1987:331)에서 필자는 ‘그때’가 문장 1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22) e의 개념은 현대생성문법의 공법주의 하나와 일치하는데 이는 주로 주시경 (1910)의 “승은뜻”에 해당하며(고영근 1983:294) 통사상의 잠재성분을 일컬는다. 우리말에 대한 이 방면의 최근의 업적은 이윤표(1989)를 보라.

c. 우리 智勝入 나문 드트리며 未來옛 弟子 | 아닌 둘 엇메 알리오 그
러나 障이 순지 만흔 다소로 道果 아득기 머니(월석 14, 56b)

(11)은 현대어의 예 (4)와 같이 ‘그러나’가 앞의 문장을 역겹의 관계로 뒤의 문장에 이어주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예이다. (a, c)는 지문의 예이고 (b)는 대화의 예이다. 앞 문장이, (a, b)는 부정평서형으로, (c)는 추측의 문형으로 각각 끝나 있다. 그러나 이런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러한 예는 앞의 (4)와 같이 두 문장을 이어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시키는 기능을 떠고 있으므로 문장경계표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정이 단순하지 않다. 앞뒤의 문장구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장 단위를 이어 준다기보다 이들의 연결체인 이야기를 이어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야기 경계표지로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대표적으로 (11a)의 선행절이 단순한 문장 층위의 경계를 뛰어 넘어 이야기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접속부사 ‘그러나’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된 선행절을 후행절에 이어 줄 때에 더 많이 쓰인다. 이런 동아리의 접속부사에는 ‘그러나흔디’도 들어올 수 있다.

- (12) a. “몸과 모금과로 몬 아로문 모본 나모풀구티 아로미 업고 모수돈 섭
설호야 眞實티 몯거니와 그러나 諸佛解脫은 衆生이 心行八 가온더
求暮디니”(월석 9, 23b)
- b. “이 디난 後에 모수매 서로 體信호야 나며 드로물 어려비 아니친마
론 그러나 잇는 싸히 순지 밀 고대 잇더니”(월석 13, 26a)
- c. 識性을 뒤우더 아니하고 쪼 그장 더 업게 허니 그러나 識을 브터 업
게 훌썩(월석 1, 36a)
- d. “내 헤마 衆生에게 즐겁 거슬 施호더 뜨데 欲호물 조차 호니 그러나
이 衆生이 다 헤마 衰老호야”(월석 17, 47b)
- e. “佛法中에 브즈런히 精進훌썩 得흔 거시 만호라 훈다니 그러나 世尊
이 우리둘히 모수미 현 層을 著호야 져근 法 즐기는 둘 아루사 꼳
브리사”(월석 13, 34a)
- f. 너나문 모금 일호니는 아비 오거늘 보고 비록 쪼 歡喜호야 問訊호야
病 고토물 救호야도 그러나 藥을 주어 놀 먹들 슬히 너기니(월석 17,

20a)

- g. 이제 또 내 모물 두려다가 維那를 사모려 허실쇠 들잡고 것거 허가니
와 그러나 훈디 훈 너고로 헤여 훈된(월인석보 8, 93a)

(12abdeg)는 대화나 독화의 예이고 (12cf)는 지문의 예이다. 현대어는 대개 ‘그러나’가 (4)와 같이 독립된 두 문장이 逆接내지 讓步의 의미로 이어질 때 나타나고 연결어미 뒤에서는 짜임새 없는 대화나 문장표현을 제외하고는 쓰이는 일이 드문데 중세어에서는 독립된 홀문장 사이보다는 이어진 문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 많다. 현대의 소설 대화에서는 접속부사에 기댄 표현을 좀처럼 접하기가 어려운데 석보상절에서는 대화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일이 많다. 아무리 그것이 한문 원문을 바탕으로 한 번안물이라 하더라도 참된 우리글의 양식이 확립되지 아니한 당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자료를 실제적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나 훈디’가 출현하는 조건은 연결어미 가운데서도 양보의 ‘-거/어니와, -전/언마론, -어도’, 설명, 이유의 ‘-니’와 같이 후행주절과 비교적 독립성이 강한 것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³⁾ 후행주절과 독립성이 강한 (12)의 예들을 관례에 따라 이어진 문장으로 보아야 할지 두 문장이 접속부사에 기대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더욱이 선행절과 후행절을 문장 단위로 보아야 할지 이야기 단위로 보아야 할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우선 두 문장의 이어짐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그러나’는 문장경계의 표지로 볼 수 있다.

‘그러면’도 그 분포가 ‘그러나’와 비슷하다. 이의 부정형은 ‘그리티 아니 훈면’이다.

- (13) a. 이 數에서 디니디 아니 훈 둘 엊에 알리오 그러면 아로미 어렵다 니
샤미 佛智 여려본 주리 아니라 機 제 어려불 쓰르미라(월석 14, 56b)
b. 俱夷 니르샤터 “내 願을 아니 從으면 고즐 물 어드리라” 善慧 니르
샤터 “그리면 네 願을 從호리니…布施하는 모수물 허디 말라”(월석

23) 후행주절과 독립성이 강한 연결어미라 함은 고영근(1987:320-322)의 (1)~(5)에 제시된 나열, 상반, 조건·가정, 설명·이유·원인, 설명·인용의 연결어미를 가리킨다.

1, 12b)

(13)은 독립된 두 문장이 ‘그러면’에 기대어 이어져 하나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a)는 지문으로서 추측의문문이 ‘그러면’에 기대어 뒤의 문장과 이어져 있다. (b)는 앞의 대화 문장이 ‘그러면’에 기대어 뒤의 문장과 어울려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접속부사 없이 이어지는 일이 많다. 전자도 앞의 (11)과 같이 앞뒤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이라기보다 이야기를 이어 준다고 해석하는 편이 온당하여 보이므로 이야기 경계의 표지로 보기로 한다. 그러나 후자는 구성이 비교적 간단한 대화를 이어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장경계표지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때에는 문장과 이야기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 (14) a. 일후미 無名滅이니 그러면 行°롯 아래 아니 滅호리 업스리니(월석 2, 22c)
 b. 眞心이 당다이 滅호리니 그러면 斷果에 떠리디리오(월석 11, 63a)
 c. “네 菩薩へ 알뢰 聲聞의 小法 즐기느니를 나모라시더니 그러면 부혜 實로 大乘으로 教化호시다소이다”(월석 13, 36b)
 d. “스물세센 내 成佛호야…나랏 菩薩이 아웃이 다른 나랏 無數諸佛을 供養호 습고 밤 前에 도라오리니 그러ти 아니하면 正覺 일우디 아니 호리이다”(월석 8, 63a)

(14a~c)는 선행절이 ‘그러면’에 기대어 뒤의 주절에 이어져 있는 문장이다. (a)는 직설접속형, (b)는 추측접속형, (c)는 회상접속형으로서 모두 원인의 의미가 파악된다. ‘그러나’에 비하여 연결어미의 종류도 ‘-니’에 국한되어 있고 의미 역시 그러하다. (a, b)는 지문임이 틀림없고 (c)는 대화의 예이다. 현대어에서는 ‘그러면’이 대화이전 지문이전 독립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띠고 있는데 중세어에서는 이어진 문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도 ‘그러나’에 준하여 문장경계표지로 해석하기로 한다. (14d)는 ‘그러면’의 부정형으로서 그 기능은 긍정형과 차이가 없다.

‘그럴时候’도 앞의 두 접속부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준다.

- (15) a. ㅎ오사 일후를 입이라 ㅎ니라 그럴时候 六根을 널오되 賊媒라 ㅎ니

(월석 2, 21d)

- b. “三行°를 우흔 別教엣 사르미 일홍도 오히려 모른거니 ㅎ물며 降伏 히와 그초리여 그럴씨 내 짓 真人으로 네 짓 極果를 삼느니라”(월석 14, 73b)
- c. “엇더한디 뒤흐로 둘요매 제 일호며 밧物에 제 모른거뇨 그럴씨 부 베 慈悲로 分別하사”(월석 13, 32a)

(15)는 종결형으로 된 선행문장이 ‘그럴씨’에 기대어 인간관계의 의미로 뒤의 문장에 이어져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예이다. (a)는 부정평서형, (b)는 추측의문형, (c)는 대화나 이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확인설명의문형으로 되어 있다. (a)는 앞의 대부분의 예와 같이 이야기 경계 표지가 분명하다. (b, c)는 구성이 단순한 대화를 이어 준다는 점에서 문장 경계표지로 볼 수 있다. 이때는 문장과 이야기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 (16) a. 그제아 낫 마도물 ㅎ너 그럴씨 일후를 剎刹라 ㅎ느니라(월석 1, 46a)
- b. 호리워 뛰우면 精을 일허 아로미 나누니 그럴씨 智를 두르며 일후를 認이라 ㅎ느니(월석 2, 21a)
- c. “드를 사르미 다 시리 키 올월리니 그럴씨 宗親과…發願人 술위를 석디 아니호매 미며”(월석 서, 23-24)
- d. 穩僅 악숨들히 모다 譲論호터 “羅睺羅 | 月食 月食예 이 아두리 ㄴ니라” ㅎ야 그럴씨 일후를 羅睺羅 | 라 지호시니라(월석 2, 2b)

(16)은 연결형으로 된 선행절이 접속부사 ‘그럴씨’에 기대어 뒤의 주절에 이어져 있는 예이다. (a)는 부정접속형, (b)는 직설접속형, (c)는 추측접속형이 각각 인과 관계의 의미로 후행주절에 이어져 있다. (c)는 세조의 서문으로 대화내지 독화의 태두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d)는 직접인용절을 안은 설명의 종속적 연결형이 ‘그럴씨’에 기대어 후행주절에 이어져 있는 예인데 현대어 같으면 ‘그리하여’ 정도에 해당하는 접속부사가 나타나야 마땅하겠으나 중세어에는 그에 해당하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16)의 예도 일단 앞의 경우에 미루어서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켜 한 단위의 이야기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장경계의 표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씨’와 비슷한 기능의 접속부사로 ‘이럴씨’가 있다. 그 분포와 기능이 ‘그럴씨’와 큰 차이가 없다.

- (17) a. 空이 곧 이 色이니 俗境이라 이럴썩 眞을 證한 時節에 俗을 소못 알며(월석 8, 31b)
- b. “一切諸佛이 護持해야 낫디 아니호샤…三菩提에 모르디 아니호리라 이럴썩 舍利佛아 너희들히 내 말와 諸佛八마를 尚호야마 호리라”(월석 7, 75)
- c. 이 四天이 혼갓 뷔리여 이럴썩 聲聞緣覺이 물불 고더라(월석 1, 37a)
- d. “부례 實로 大乘으로 敎化호시다소이다 이럴썩 우리 널오더 ‘本來 求호는 무숨 업다이다’ 호노니”(월석 13, 36b)

(17)은 접속부사 ‘이럴썩’가 두 문장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다. (a)는 서술격조사의 직설평서형, (b)는 추측평서형, (c)는 추측의문형, (d)는 회상감동평서형으로 끝나 있다. (a, c)는 지문의 예인데 앞뒤의 구성을 보면 이야기임이 틀림없으므로 이야기 경계의 표지로 볼 수 있다. (b)는 단순한 대화의 결합이므로 문장 경계의 표지가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대화라도 (d)는 후행문장이 그속에 직접인용된 문장을 안고 있으므로 문장경계표지로만 보기 어렵다. 문장의 경계와 이야기의 경계의 사이에 나타난 것이다.

- (18) a. 둘흔 根境이 다 識의 드논 배니 이럴썩 經돌해 十二入이라 일흔 지호 니라(월석 2, 21d)
- b. “琰魔法王이 罪이 야수로 詳考해야 罪 주느니 이럴썩 내 이제 여러 難을 아니케 호노라”(월석 9, 39b)
- c. 이 觀 지은 사루문 다른 뉘에 諸佛八 알찌 나아 無生지을 得호리니 이럴썩 智慧 있는 사루문 무수물 고즈기 無量壽佛을 소외 보수불 디니(월석 8, 32a)
- d. 目連 等이 무수매 제 便安히 몰 너겨 王膳을 맛나 몬득 먹디 몰듯 해야 이럴썩 두리여 請호니라(월석 13, 64b)

(18)은 ‘이럴썩’가 종속적 연결어미로 된 앞의 절을 뒤의 주절에 인과관계의 의미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a)는 서술격조사의 직설연결형, (b)는 동사의 직설연결형, (c)는 추측연결형으로 되어 있다. (d)는 (16d)와 비슷한 용법으로서 현대어 같으면 ‘이리하여’ 정도의 표현이나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나 중세어에는 그런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지문과 대화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b)는 대화의 예이고 나

머지는 지문의 예이다. 중세어의 접속부사도 대부분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 계열로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럴씨’와 같은 ‘이’계열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와 같은 다음 예도 이러한 테두리에 들어온다.

- (19) 乎나히 叟로 달아 비치 오으로 히오 갈기 다 구스리 빼여 잇더니 일후
미 積特이라 이뿐 아니라 너나로 祥瑞도 하며 香山에 金人 비취 優曇鉢
羅花 | 끄니라(월석 2, 46b)

(19)는 첨가의 뜻을 표시하는 접속부사인데 종결형 뒤에 쓰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의 예에 미루어서 이야기 경계의 표지로 보기로 한다. 현대어의 ‘뿐만 아니라’에 직접 연결된다.

‘그럴씨’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접속부사로 ‘이런드로, 그런드로’가 있다. 이런 예는 법화경언해 등의 간경도감 간행의 언해류에서 나타나는데 분포는 연결접속형어미 ‘-니’에 한정된다.

- (20) a. 感障을 그쳐 다으샤마 智 現前타 乎시니 그런드로 大道入 機 應하샤
티 이 選 乎시니(법화경언해 3, 92a)
b. 일로 現前에 나와 比丘僧과 供養호미 드외리니 이런드로 내 널오더
(법화경언해 5, 202-203)

B. 시간적 접속부사에 기댄 이야기의 형성

석보상절에는 앞의 접속부사와 함께 이야기나 문장 사이에 시간부사 ‘그때’나 이에 상당한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간부사류가 이야기 형성에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 보기로 한다. 우선 석보상절 권 1의 첫머리의 표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21) 薩 阿僧祇劫時節에 혼 菩薩이 王 드의야 기사 나라를 아주 맛디시고 道
理 비호라 나아 가샤…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이라 乎더라(월석 1,
4b 4-5)

‘벳 阿僧祇劫時節에’는 <석보상절>이라는 전체 이야기의 도입자로서 민담이나 설화 등에서 흔히 목격되는 표현이며 많은 고대소설의 “화설, 화표, 선설, 설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도입자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띤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온당하여 보인다.²⁴⁾ 이 부분은 혼히 ‘네’(옛날)라는 시간명사로 시작되며 이어 (21)의 ‘阿僧祇劫時節’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부사어를 써서 전체 이야기의 사건시작시간을 분명히 밝히는 역할을 띠고 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석보상절에는 단편작품류가 사이사이 끼여 있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하는 일이 많다. 다음의 경우는 ‘네’ 다음에 공간표시어 ‘王舍城’이 와 있다. 어느 경우이건 시간표시어와 공간표시어는 부사격조사 ‘애/에’, ‘의/의’를 취한다.

(22) 네 王舍城의 혼 長者 1이소더 일후미 傳相이리니(월석 23, 72a)

앞서 말한 화설 부분이 도입되면 한편의 설화는 종결형이나 연결형 뒤에 시간적 접속부사가 삽입된다.

- (23) a. 나랏 사르미 굴그니여 혀그니여 우디 아니흐리 업더라 그诽 부멋 戒
光이 더욱 顯하샤 一萬 히 혼舛 도둔 듯 ほ더시니(월석 10, 12-13)
 b. 이려듯혼 一千二百 원 굴근 弟子들히…雁王マ티 누라 더 나라해 가
니라 그께 世尊이 옷 니브시고 바리 가지시고(월석 7, 33-34)
 c. 王이 이 말 듣고...讚歎호터 “부멋 물근 智慧 내 모수물 아른시리니
慈悲를 구파사 이 나라해 오소서” 그께 香니 부멋 精舍애 가니(월석
7, 29-30)

(23)은 종결형 뒤에서 ‘그诽’가 쓰인 예이다. 이 예는 (10)의 ‘그诽’와 성질이 같다. 그것은 (10)이 직접인용문을 안은 지문의 뒤에 쓰였다는 사실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a)는 회상평서형 뒤에서, (b)는 부정평서형 뒤에서 ‘그诽’가 나타난 것인데 모두 지문의 예이다. (c)는 왕의 독화(독백) 뒤에 ‘그诽’가 도입되어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 뒤에 지문이 계속되는 예이다. 종결형만 보아서는 독립된 문장을 이어 준다고 그 기능을 규정할 수 있으나 세 예 모두가 문장의 성격을 벗어난 이야기의 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야기 경계의 표지의 역할을 띠고 있다

24) 고대소설 가운데서도 판소리계는 이러한 표현이 쓰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고대소설이라 하여도 서울대학본 <구운동>에는 이런 표지가 없다. 말머리를 바꾸는 ‘차설, 각설’ 등과 함께 그 기능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이러한 표현이, 많은 언어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Longacre(1979)의 문단도입자(paragraph introducer)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고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점에서 ‘그때’의 기능은 종결형으로 된 지문에 나타나는 접속부사의 예 ‘그러나’(11a,c), ‘그리면’(13a), ‘그럴时候’(15a), ‘이럴时候’(17a,c)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양자가 두 이야기를 이어서 더 큰 또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한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때’ 등은 앞의 논리적 접속부사에 대하여 시간적 접속부사라 부를 수 있다.

- (24) a. 普光佛이 世界에 나거시 늘 그때 善慧라 菩 仙人이 五百外道이 그르
아논 이를 驚쳐 고터시 늘(월석 1, 8-9)
 b. 그 盖에 마오리 이서 이든 소리 내야 부녀와 比丘僧을 請하 습더니
그때 如來 比丘두려 나쁜사자(월석 7, 30ab)
 c. 摩訶迦旃延둘히 다 두리여一心으로 合掌하야…호 소리로 倭를 술
보더 그때 世尊이 大弟子둘히 무수미 念을 아론시고(월석 13, 64ab)
 d. “(世尊하)…조흔 짜흘 물 쓰려 끌오 노픈 座 맹길오 연조면 그때 四
天王이…다 그 고대 가 供養하며 디끼리이다”(월석 9, 39-40)
 e. “(大德世尊하)…더 王이 그 사움두려 무려 지운 罪며 福이며 혜여
公事하리니 그때 痘흔 사르미 아주미어나 아로리어나 痘하니 爲하야”
(월석 9, 50)

(24)는 연결형으로 된 선행절이 ‘그때’에 기대어 후행절에 계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예이다. 앞의 논리적 접속부사와 같이 ‘그때’는 모두 종속적 연결어미에 후행한다. (a,b)는 설명의 기능으로 이어져 있고 (c)도 이러한 톤두리에 넣을 수 있다. 중세어의 연결형 ‘-오더’는 직접인 용절을 이끌기도 하고 연결어미 ‘-니’와 같이 설명의 방식으로 후행절에 이어 주는 기능을 띠기도 하는 등 그 기능이 단순하지 않은데 (c)는 설명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보인다.²⁵⁾ 그것은 ‘술보더’를 ‘술봉니’로 바꾸어도 기능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d,e)는 대화의 예이다. (d)는 조건이나 가정의 연결형 뒤에 ‘그때’가 쓰였고 (e)는 추측 연결형 뒤에 나타났다. 시간적 접속부사는 앞의 논리적 접속부사와 같이 지문은 물론 대화의 이어진 문장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때’의 연결형 뒤의 출현환경도 논리적 접속부사와 마찬

25) 중세어의 ‘-오더’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김완진(1976:159-160), 이현희(1988)를 보라.

가지로 주절과 독립성이 강한 종속적 연결어미 뒤에 분포된다는 공통성이 확인된다. 이곳에서도 앞의 연결형 뒤의 논리적 접속부사의 예를 따라 문장경계표지의 자격을 주기로 한다.

‘그뼈’에 이어 이와 비슷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그제(아), 그저(지), 이뼈, 더뼈’ 등의 시간적 접속부사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 (25) a. (釋迦如來)…十方에 現身하야…‘부터 드의요리라’ 허시더라 그제
六十六億諸天이 모다 證論호더(월석 2, 10b)
- b. “阿難아…부터 너르시는 여덟가짓 恭敬을 나도 깃소방 머리로 받습
노라” 그제마 大愛道 | 出家하야…應眞을 得하니라(월석 10, 21-22)
- c. (善宿比丘 | 너교더) <이 사르미 苦行호물 能히 이리하야…僥慢호
그 모습 보려 뚱무딪 우회 겨를 구비 할낫다> 허거늘 그제 부데 올
흔녀그로 도록사(월석 9, 35중a)
- d. 또 十六王子 | 부엇지 轉法輪 請하 습거늘 보고 그제 諸梵天王이 머리
조아 부엿지 禮數하 습고(월석 14, 23b)

(25)는 시간적 접속부사 ‘그제(아)’에 기대어 두 문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거나 주절과 종속절이 이 말을 다리로 삼아 하나의 겹문장으로 구성되는 예이다. (a)와 (b)는 독립된 문장 사이에 시간접속부사가 쓰인 예이다. (a)는 간접적 말씨를 안은 지문으로서 회상평서문 뒤에 ‘그제’가 쓰였고 (b)는 부처의 대화와 작자의 지문을 ‘그제아’가 이어 주는 것이다. (c)는 善宿比丘의 독화를 안은 지문이 이유를 뜻하는 어미 ‘-거늘’에 기대어 뒤의 주절에 이어지는 것이다. (d)는 계기적 나열의 연결어미 ‘-고’에 기대어 두 지문이 주종관계로 이어져 있다. 모두 앞의 (22), (23)의 ‘이뼈’의 기능과 차이가 없다. 종결형의 경우는 ‘그제(아)’가 이야기 경계의 표지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앞의 예에 미루어 문장 경계의 표지로 보기로 한다.

- (26) a. (光音天)…모다 世界에 와 날씨 일후를 衆生이라 허니라 그저지 쌈
마시 飪乞티 들오 비치 허더니(월석 1, 42a)
- b. (占호는 사물) 다 슬보더 “聖子 | 나사 輪王이 드의시리니 出家하시
면 正覺을 일우서리로소이다” 그저지 內率陀諸天들히 널오더(월석
2, 23b)

c. 日月燈明佛이 이 經 니르시고 즉자히…몹과 모슴侪 뛰디 아니호야
겨시거늘 그저기 하늘해서…摩訶曼殊沙華를 부엇 우좌 大衆들히 그
에 비흐며(월석 11, 85a)

(26)은 시간접속부사 ‘그저기’에 기대어 하나의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로 통합되거나 주절과 종속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되는 예이다. (a), (b)는 종결형 뒤에 ‘그저기’가 쓰인 예이다. (a)는 부정평서형으로 끝나 있고 (b)는 접하는 사람의 대화와, 지문을 이어 주는 것이다. (c)는 이유의 종속적 연결어미 ‘-거늘’로 된 종속절을 주절에 이어 준다. 앞에서 살펴본 시간적 접속부사와 그 기능에 있어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야기와 문장 경계의 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7) a. 그의 아돌돌히…모수풀 놀카비 머거 서로 미리 알고 두토아 火宅에
나니라 이찌 長子 | 아돌돌히 便安히 나 네거릿 깊가온더 싸해 안자
누외야 그린 것 업순 고돌 보고(월석 12, 28)

b. 子息들히 後에 다른 毒藥 먹고 藥이 發す야 가슴앓거 싸해 그우더니
이찌 그 아비 지비 도라오니(월석 17, 16-17)

c. 葡萄 업거늘 糜米 나니 한 햇흘 마시 다 그더니…그 머근 後에아 물
보기률 허니 남진 겨지비 나니라 그 時節에 情欲 한 사른미 겨지비
두외야(월석 1, 43-44)

d. 王이 四兵 드리시고 釋姓을 되호사 東山에 드려가사 헤너고론 깃그
시고 헤너고론 두리여 헤더시다 그 나래 諸釋이 모다 五百 아돌 나
흐며(월석 2, 43-45)

e. 諸天이 虛空에 그두기 뼈 쪽조바 오며 풍류하고 곳 비티니 그날 摩
耶夫人 우계 그 야호로 희사(월석 2, 18b-22b)

f. 尼師檀이 즉자히 七寶로 우문 五百億金臺 드워어늘 색로터 헤니 즉
자히 七寶莊嚴흔 五百億蓮花 | 드외야(월석 7, 39b)

(27)은 앞에서 검토한 시간적 접속부사와 비슷한 기능을 띤 유의적 표현이다. (a, b)의 ‘이찌’는 지문의 부정평서형과 회상접속연결형 아래에 쓰인 것인데 월인석보 권 12, 14, 17, 18에 조금 분포되어 있다. (c)의 ‘그 時節에’는 지문의 부정평서형 아래 쓰인 것인데 역시 용례가 많지 않다. (d, e)의 ‘그날(애)’은 종결형과 연결형 뒤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예가 많지 않다. (f)의 ‘즉자히’는 두 군데 쓰였는데 앞의 것은 단

순한 시간부사로서 주어명사구 ‘尼師檀’이 즉시 오백억 금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꾸며 주는 기능을 띠고 있는데 대하여 뒤의 것은 원인의 연결어미 ‘-니’의 뒤에 쓰여서 앞뒤의 절을 주종관계로 이어 주고 있으므로 시간적 접속부사의 태두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상 살펴본 시간적 접속부사는 앞뒤의 문장이나 절을 동시에 이어 준다는 점에서 동시적 시간접속부사라고 할 수 있으나 시간적 접속부사류 가운데는 계기성을 띤 것들도 눈에 띄인다.

- (28) a. 그제마 허두리 처럼 나니라 그 後에마 의니 올하니 이거니 계우니
흘 이리 나나라(월석 1, 42b)
b. 衆生들히 슬허 올오 받도 제여곰 눈호며 집도 제여곰 짓더니 그 後
에 제 할론 马초고 누리 것 서로 일벼우를 홀석(월석 1, 45)

(a)는 부정평서형으로 된 지문이 ‘그 後에사’라는 계기적 시간접속부사표현에 기대어 주절에 이어져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b)는 회상연결형으로 된 지문이 계기적 시간접속부사에 기대어 겹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a)는 종결형에 근거하여 이야기 경계의 표지로 보고 (b)는 문장경계의 표지로 보아 둔다.

시간부사라 하여 모두 접속의 기능을 띠지는 않는다. 단순한 시간부사로 보아야 할 것들이 더러 보인다.

- (29) a. “世尊하 그의 窮子 | 아비 이 말 듣고 즉재 阿彌陀佛”(월석 13,
32)
b. 부터 “디나건 無量無邊不可思議阿僧祇劫에 그의 부처 겨샤님”(월석
14, 6b)
c. 그의 無數千萬億種衆生이 부터쇠 와 法 듣거늘 如來 그의 衆生이 諸
根이 놀코脖며…개울음을 보아(월석 13, 50b)
d. “得大勢야 네 뜨데 엊더뇨 그렷 常不輕賣薩은 엊메 다른 사르미리오
내모미 괴라”(월석 17, 90a)
e. 王이…종류 칠금 伎女五百을 흘히야 서로 그라 괴수겠게 허시니…各
色 새들히 몰 니르해리려라 그의 太子 나히 漸漸 조라거시늘(석상
3, 5a)

(29)는 ‘그의’가 단순한 시간부사로 쓰인 예이다. 앞의 (27f)의 앞쪽

의 ‘즉자히’와 같이 문장이나 절을 이어 한 단위의 이야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a)는 호칭독립어 뒤에 쓰였고 (b)는 앞의 ‘無量～祇劫’이라는 시간부사어 명사구를 다시 가리킴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고 있다. (c)에는 두 개의 ‘그때’가 쓰였는데 앞의 것은 동시적 시간부사이고 뒤의 것은 발화 당시를 뜻하는 단순한 시간부사이다. (d)도 단순한 시간부사인데 설화중의 어느 시점을 가리킨다. (e)의 ‘그때’는 동시적이라기보다는 계기적인 시간 접속부사로서 ‘한편’으로 옮기는 것이 좋으며 차라리 ‘그 後에’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온당하다.

- (30) a. 十六王子 । 法 듣습고 益을 어더 그저피 出家하야 無 大乘을 求하니
라(월석 14, 41b)
- b. “내 그제 부암 오누다 해야 브르다가 몬호니”(월석 9, 24a)

(30)은 ‘그저피’와 ‘그제’가 단순한 시간부사로 쓰인 예이다. (a)는 설화 중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말로서 동사를 꾸미는 기능밖에는 없으며 (b)의 ‘그제’도 주어명사구 ‘나’가 아기를 낳던 당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뒤의 동사구를 단순히 꾸미는 기능만 파악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접속시간부사 ‘그때’ 부류는 석보상절 저본의 ‘爾時, 時, 是時, 于時’ 등의 시간부사를 번역한 것으로 저본불경에서부터 이미 접속시간부사로 표현되어 있다.²⁶⁾

그런데 저본에는 분명히 위의 한자어가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역과정에서 빠진 곳이 더러 보인다.

- (31) a. 舍衛國 大臣 須達이 가수며려 천라이 그지 업고…어잇분 사르물 취
주어 거디칠씨 號를 紿孤獨이라 해더라 φ 紿孤獨 長者 । 날궁 아두
리리니(석상 6, 13a, 이동립 1959:41)
- b. “(耶輪) 太子 । …羅睺羅를 出家 헉ษา 나라 니스리 를 끊게 해시느니
엇더해시니잇고” φ 大愛道 । 드르시고 혼 말도 몬하야 잇더시니(석
상 6, 7b, 이동립 1959:36)

26) 현천 석보상절의 저본불경에 대하여는 권 6, 9, 13, 19은 이동립(1959)에
서, 권 11은 심재완(1959)에서, 권 23, 24는 김영배(1972)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월인석보 권 23 속의 석보상절의 저본불경은
민영규(1963)에서 볼 수 있다.

- c. 그저 그 나랏 사ᄅᆞᆷ이 모다 王과 六師와 위ᄒᆞ야 노ᄑᆞن 座 링고오 ϕ 須
達인 舍利弗 위ᄒᆞ야 노ᄑᆞn 座 링고니(석상 6, 28a, 이동림 1959:54)
- d. 有情의 혼퇴 나운 神이 제 지운 罪며 福을 다 써 疾魔法王을 맷더든
ϕ 더 王이 그 사ᄅᆞᆷ들 러 무리 지운 罪며 福이며 헤여 꿩ᄉᆞහ리니(석
상 9, 30ab, 이동림 1959:96)

(31)에서 ϕ로 표시한 부분이 저본의 한자 시간표시어가 결역된 부분이다. (a)는 지문의 종결형 뒤에서, (b)는 대화의 종결형 뒤에서, (c, d)는 지문의 연결형 뒤에서 각각 시간적 접속부사가 나타나지 않은 예이다. 저본의 어떤 부분을 번역에 반영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석보상절 편찬자에게 달려 있다. 석보상절과 같이 창작에 가까운 의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²⁷⁾ 이야기나 문장의 경계표지가 쓰여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중세어의 종결어미와 독립성이 강한 연결어미는 이야기나 문장 경계의 보조적 표지로 이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방증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

C. 수식적 접속부사에 기댄 이야기의 형성

수식적 접속부사란 수식의 기능과 함께 접속의 기능을 뼈으로써 이야기의 형성에 참여하는 문법적 수단이다. 이곳에는 ‘쏘’를 들 수 있다.

- (32) a. “(世尊하)…過去無量阿僧祇劫에 부례 世間애 냇더니…그 사ᄅᆞᆷ이 福
어두미 無量無邊ᄒᆞ리이다 죠 過去恒河沙劫에 부례 世間애 냇더시니”
(월석 21, 131ab)
- b. 世尊八 道 일우샨 이리 양조를 그려 이루쉽고 쏘 正音으로 뻐 곤 因
ᄒᆞ야 더 翻譯ᄒᆞ야 사기노니(석상 서, 6a)
- c. (善慧)…後에 두 줄기 물 비호니 죠 空中에 머므리 잊거늘(월석 1, 14a)
- d. (善慧比丘)…四天下를 다스리시다가 죠 命終ᄒᆞ샤 올아 切利天애 나
샤(월석 1, 19-20)

위의 예는 ‘쏘’가 이야기 및 문장 경계의 기능을 띠는 것이다. (a)는 종결평서형 뒤에, (b)는 대등적 연결형 뒤에, (c, d)는 종속적 연결형 뒤에 ‘쏘’가 각각 나타난 것이다. 대체로 앞의 논리적 접속부사 및 시

27) 석보상절도 〈석보상절〉(1447)과 〈월인석보〉(1459) 속의 석보상절 사이에는 번역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민영규(1956), 심재완(1959), 고영근(1961), 이호권(1987)을 보라.

간적 접속부사의 분포와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d)와 같이 중단의 연결어미 ‘-다가’ 뒤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의 예에 준거하여 이 야기 및 문장경계의 표지에 편입시키기로 한다.²⁸⁾

D. 보조사에 기댄 이야기의 형성

중세어의 보조사도 현대어에 준거하여 이야기 형성의 기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보조사에 따라서는 현대어와 다른 점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조의 보조사 ‘은/눈’이다.

(33) 디나건 오란 刻에 弗沙佛入 時節에 두 菩薩이 거사되 혼 일후문 釋迦牟尼시고 혼 일후문 彌勒이려시니(월석 1, 51b)

위의 예는 보조사 ‘은’이 비록 이어진 문장의 주절에 쓰이기는 하였지만 현대어의 (5a)와 차이가 없다. 선행절의 ‘두 菩薩’은 처음 도입되는 명사구이기 때문에 주격표지 ‘이’를 취하였으나 후행절의 두 명사구는 첫 명사구와 명령적 연쇄를 이루면서 이와 함께 보조사 ‘은’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는 그리 많지 않다.

- (34) a. 옛 阿僧祇劫時節에 혼 菩薩이 王 드외야 거사…나라해 빌어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이라 혼더라 菩薩이 城外 甘蔗園에 精舍 링골오 혼오마 안자 잇더시니(월석 1, 5a-6a)
 b. 도죽 五百이 그윗거슬 일버서 精舍 거트로 디나가니 그 도즈기 菩薩
 人前世生人 憑籬] 러라(월석 1, 6ab)

(34)가 현대어의 용법과 어그리지는 예이다. (a)는 앞의 이야기의 주어 명사구 ‘菩薩’이 (33)과 같이 주격표지를 취하였고 뒤의 이야기에서도 관형사 ‘혼’만 삭제되었을뿐 주격표지를 그대로 취하고 있다. (33)에 미룬다면 ‘(그) 菩薩은’이 기대되는 환경이다. (b)는 선행절에 주어 명사구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후행절에서는 ‘은’을 취하는 것이 옳겠으나 역시 주격표지를 취하였다. (a)와는 달리 지시관형사 ‘그’를 앞세우고 있다. 비록 주격표지가 반복·사용되고 있기는 하여도 같은 명사

28) 모든 ‘조’의 예에 대하여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넓은 자료수집의 바탕이 요구된다. 한편 이야기와 문장 경계의 기능을 지닌 수식적 접속부사에 위의 ‘조’ 밖에 또 다른 부사가 편입될 수 있는 문제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 반복과 대용어의 사용에 기대어 문장은 물론, 이야기끼리도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5b)와 같은 현대어의 용법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음 (35)를 살펴보자.

- (35) a. “一切衆生도 이 혼 흥야…一切 머즌 이리 망라엣침쟈고로브터 나누니이다 夫人돌토 이 혼홀썩 내 더런 어린것 두려 겟구를 아니 흥노이다”(석상 11, 35ab)
- b. (優填王) “如來 어듸 겨시니잇고”
(阿難) “大王하 나도 如來 겨신 데를 모른수바이다”(석상 11, 10ab)
- c. 그 金像이 世尊 보습고 合掌 흥야 禮數 흥시거늘 世尊도 꾸르샤 合掌 흥시니(석상 11, 13b)

(a)는 같은 사람의 대화에서 뒤의 이야기의 주어명사구 ‘夫人들 흥’의 전제가 종결형으로 된 선행 이야기의 주어명사구의 전제와 같음을 의미한다. (b)는 대답의 주어명사구에서 ‘도’가 나타남으로써 물음의 주어명사구와 전제가 같음을 표시한다. (c)는 연결형으로 된 문장의 주어명사구의 전제가 뒤의 문장의 그것과 같음을 표시한다. 현대어에서 나타나는 ‘도’의 이야기 형성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²⁹⁾

앞에서 든 몇 가지의 통사적 수단 밖에도 중세어에는 이야기 형성에 참여하는 문법적 절차를 더러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설화에서는 칙설법 ‘-느-’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다가 설화가 달라지면 회상법 ‘-더-’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현상이다. 이는 흔히 이야기문법에서 논의되는 前景(foregrounding)과 後景(backgrounding)의 표지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야기의 경계 표지로 간주될 수 있다.³⁰⁾

2. 의미·기능적 통합 수단

A. 의미상의 등가성에 기반 명명적 연쇄

-
- 29) ‘온/는’ 밖의 모든 중세어의 보조사가 현대어와 같은가 하는 문제는 간단히 결정할 수 없다. ‘온/는’을 비롯한 중세어의 모든 보조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망된다. 중세어의 보조사 목록에 대하여는 고영근(1987:334)를 보라.
 - 30) 전경과 후경에 대하여는 Tolmin(1987)(ed)을 보고 이와 관련된 우리 말의 분석은 Lukoff(1986), 정희자(1987)을 보라.

의미상의 등가성이란 (6)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공통된 어휘적 자질을 기반으로 삼아 명명적 연쇄를 이룸으로써 이야기를 형성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먼저 단순한 명사구에 기댄 명명적 연쇄를 살펴보기로 한다.

- (36) a. 大瞿曇이 天眼으로 보고 虛空에 뉴라와 물조회되 “...” 그 王이 사롭
브려 쏘이 주기수뿐니라 大瞿曇이 슬허 뾰리여 棺에 너샵고(월석 1,
7ab)
- b. 如來 迦毗羅國城의 드리 乞食호샤 難陀의 치보 가시니 難陀 | 부데·
門이 와 거시다 듣고(월석 7, 7b)

(36)은 고유명사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예이다. (a)는 종결형으로 된 앞의 이야기에서 도입된 주어명사구 ‘大瞿曇’이 뒤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단순반복됨으로써 더 큰 이야기를 구성하는 예이다. (b)는 선행절에 도입되어 있는 관형어명사구 ‘難陀’가 후행절에서 그대로 반복됨으로써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현대어의 지문에서도 구조가 복잡하고 인물이 많이 등장할 때에는 ‘그’ 또는 ‘그녀’와 같은 대용어 대신 앞에서 나온 고유명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 많다. (6a)가 대표적인 예이다.

- (37) a. (大瞿曇) 슬허 뾰리여 棺에 너샵고 피 무든 豪로 과 가져 精舍애 도
라와 원녀 피 달 담고 올흘녁 피 달 달다 두고 일오녀 “...” 열眞마
내 원녀 피는 男子 | 두외오 올흘녁 피는 女子 | 두외어늘(월석 1, 7-8)
- b. 그저기 米更률 아촘 뷔여든 쪼 나조히 낙그 나조히 뷔여든 쪼 나아초
미 뇌더니(월석 1, 45a)

(37)은 보통명사가 그대로 반복되어 명명적 연쇄를 이룸으로써 크고 작은 이야기를 만드는 예이다. (a)는 대화(...부분)를 안은 지문의 목적어 명사구 ‘원녀 피’와 ‘올흘녁 피’가 뒤의 이야기에 그대로 반복되어 있다. (b)는 선행절의 부사어명사구 ‘아촘’과 ‘나조히’가 후행절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있다. 보통명사의 반복에 기댄 이런 방식의 이야기 형성 역시 현대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36), (37)을 통하여 우리는 명사구의 반복에 기댄 명명적 연쇄도 이야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38) a. 大瞿曇…그니 子息 업더니 브슈 罪오
菩薩 : 흠마 주글 내어니 子孫을 議論하리여(월석 1, 7a)

- b. 그의 燈照王이…城의 나아 부터를 맛조밥 저읍고 일홍난 고줄 비더 라(월석 1, 13b)
- c. 比丘들이 讀歎하야 널오더 “世尊이 世間에 나샤 甚히 奇特하�다” 부께 나른사더 “오늘부니 아니라 내도 이러하다라”(월석 7, 14b)
- d. 四天王이 술위 그스읍고 梵天이 길자마 無憂樹 미퇴 가지니 無憂樹 스가지 절로 구버오나눌(월석 2, 36a)

(38)은 유의어, 상·하위어가 서로 순응함으로서 이야기를 형성하는 예이다. (a)는 보살의 말에 나타난 ‘子孫’이 선행하는 대구담의 말에 나타난 ‘子息’과 유의 관계에 섬으로써 한 짹의 대화 이야기로 그 관계를 굳히고 있다. (b)의 ‘부텨’는 훨씬 앞에 나온 ‘普光佛’을 가리키는 데 의미상으로 전자는 후자의 상위어이다.³¹⁾ ‘부처’는 보통 석가모니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큰 도를 깨달은 성인을 두루 일컫는 보통명사이다. 석보상절에서도 이런 용법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c)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比丘들은 世尊³²⁾이라 부르고 있지만 석보상절 편찬자는 뒤의 지문에서 다시 이의 상위어인 ‘부텨’를 사용하고 있다. (d)는 후행주절의 주어명사구 ‘無憂樹人 가지’가 선행주절의 ‘無憂樹’의 하위어로서 서로 의미상의 동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유의어나 상·하위어에 기댄 명명적 연쇄도 앞의 단순반복에 기댄 명사구의 연쇄와 같이 이야기 형성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명적 연쇄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은 대용어에 기댄 표현이다. 대용적 표현에는 지시관형사와 명사가 결합된 명사구가 있고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에 기대어 앞선 문장의 내용을 가리킴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경우로 갈라 볼 수 있다. 전자를 의존적 대용이라면 후자는 자립적 대용이라 부를 수 있다. 자립적 대용에는 생략된 명사구와 수량표시어에 기댄 명명적 연쇄도 포함시킬 수 있다.

31) ‘普光佛’에서 ‘普光’은 고유명사이지만 ‘佛’이 붙으면 부처의 하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어로 처리하였다. 이는 마치 ‘이순신’하면 단순한 고유명사이나 ‘이순신장군’하면 ‘장군’이라는 하위어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과 같다.

32) ‘世尊’은 ‘釋迦世尊’의 준말로 석가모니를 높여 부르는 말인데 보통명사로 볼 수 있다. ‘如來’도 마찬가지다. 이는 ‘석가모니여래’의 준말로서 석가모니를 신성하게 일컫는 보통명사이다.

- (39) a. 그 時節에 情欲 한 사르미 겨지비 두외야 그에 맹홀오 남진 두려드
리 더러본 이를 헝거늘 衆生이 보고 “...”한대 그 남자니 뉘으쳐 쌔
해 업더옛거늘 그 겨지비 밥 가져다가 머기고 자마 니르婢니(월석
1, 44b)
- b. 八萬四千妓女와 臣下이 갓돌히 다 모다 夫人 侍衛호수방 東山에 가
심 저지 虛空에 마도기 八部도 조쯔방 가더라 그 東山에 열가짓 祥
瑞나며(월석 2, 28b)
- c. “摩尼마다 즐근 光明을 펴아 그 光明이 盖 罗하야”(월석 8, 18b)

(39)는 지시관형사와 명사가 합친 의존적 대용의 예이다. (a)는 주절
에 나온 “사람” 관련의 보어명사구 ‘겨집’과 목적어명사구 ‘남진’이 종
속절에서 지시관형사와 결합된 ‘그 남진’과 ‘그 겨집’에 기대어 다시 언
급되어 명명적 연쇄를 이룬 예이다. 이 경우의 대용적 표현은 3인칭대
명사와 같은 기능을 띠고 있는 것인데 현대어의 소설 지문에 자주 쓰이
는 ‘그, 그녀’와 같은 값을 지니고 있다. (b)는 앞 이야기에서 도입된
“처소” 관련의 부사어명사구 ‘東山’이 뒤의 이야기에서 지시관형사 ‘그’
를 앞세워 나타남으로써 명명적 연쇄가 된 것이다. (c)는 선행절의 “일”
관련의 목적어명사구 ‘光明’이 후행절에서 지시관형사에 힘입어 반복됨
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고 있다. 의존적 대용도 앞의 명사구에 기댄
명명적 연쇄와 아무런 차이없이 이야기 형성의 기제로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 (40) a. 淨居天이 痘흔 사르미 두외야 누엣거늘³³⁾ 太子 | 무르신대 외수봉 臣
下 | 對答호수보덕 “이는 痘흔 사르미니이다”(석상 3, 17a)
- b. 五百太子 | 漸漸 즈라니...이웃나라히 背叛호거든 저희 가 터고(석상
11, 35-36)
- c. “그듸 이 굳컷 개야미 보라 그듸...이 짜해 精舍 이로수불 제도 이
개야미 이에서 살며”(석상 6, 36-37)
- d. 西入녁 셔른 麟陀尼오 [麟陀尼는 쇼천왕이라 혼 뜨더니 그어찌 쇠
하야 쇼로 천 사마 흥경호누니라](월석 1, 24b)

33) 원전에 따라 ‘누엣거늘’로 적었으나 ‘누엣거늘’이 잘못 적혀진 것으로 보인다.

- e. 王이 大愛道이 그네 가사 “젖먹여 기르라” 乎 야시 늘 大愛道 | “그리 흐리이다” 乎 시니라(책상 3, 3b)

(40)은 앞의 이야기나 문장에서 도입된 명명적 표현을 대용어로 받는 자립적 대용의 예이다.³⁴⁾ (a)의 신하의 대답 가운데 나오는 대명사 ‘이’는 앞의 절에 도입되어 있는 주어명사구 ‘淨居天’을 직접 가리킴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고 있다. (b)의 후행절에 나타나 있는 ‘저희’는 이른바 재귀대명사로서 선행절의 주어명사구 ‘五百太子’를 가리킴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고 있다.³⁵⁾ (c)는 대화의 앞선 이야기에서 도입된 관형어명사구 ‘굵’이 뒤의 이야기에서 같은 쳐소지시대명사 ‘이에’로 대용됨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룬 예이다. 이 예에는 앞선 이야기의 목적 어명사구 ‘개야미’가 뒤의 이야기에서 지시관형사 ‘이’를 앞세운 주어명사구로 나타나 있다. 이야기나 문장이 하나 이상의 명명적 요소에 기대어 결합되면 웅집력은 이에 비례하여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d)는 본문과 협주 사이에 성립되는 명명적 연쇄의 예이다. 큰팔호 안의 부분이 협주인데 이곳의 ‘그어괴’는 본문의 주어명사구 ‘西人 頸 悅’을 대용하고 있다. (e)는 지시부사 ‘그리’가 선행절에 도입되어 있는 ‘젖먹여 기르는 일’이라는 명체를 가리킴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룬 예이다. (39), (40)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중세어도 현대어와 같이 앞의 이야기나 문장의 명명적 표현을 대용할 때에는 ‘그’ 계열과 ‘이’ 계열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40)을 통하여 중세어에도 현대어와 같이 자립적 대용에 기댄 이야기 형성의 기제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인칭대명사가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은 점은 현대어와 다른 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 (41) 디나전 劫에 比提希國에 乎 嬌女 잇거늘 迦尸國王이 e₁ 곱다 듣고 感心
을 내야 使者 브려 e₂ 求훈대 그 나라히 e₃ 아니 주거늘(월석 7, 14-15)

34) 자립적 대용이 과연 어휘적 등가성에 기댄 명명적 연쇄의 토두리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논의는 뒷날로 미루고 이곳에서는 감정적으로 피에베거(1978)의 소견을 따르기로 한다.

35) 중세어의 재귀대명사의 기능적 특수성에 대하여는 김정아(1984)를 보라.

36) 현대어의 이야기 형성에서 차지하는 지시어 ‘이, 그’의 기능에 대하여는 장경희(1980)을 보라.

위의 예는 후행절에서 명사구가 생략됨으로써 선행절의 명사구와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것이다. ‘e₁’은 선행절의 주어명사구 ‘嬌女’가 나타날 자리인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이 경우 ‘그 嬌女’로도 실현될 수 있다. e₂는 선행절의 주어명사구가 목적어 명사구로 자격을 바꾸어 나타날 자리인데 역시 비어 있다. 이 경우에도 ‘그 嬌女를’이 실현될 수 있다. e₃도 같은 목적어 명사구가 비어 있다. 이런 현상은 현대어에서도 많이 보인다.

- (42) a. (사ром) 닐오더 “門 알피 혼 중과 혼 쇼캐 고불 겨지불 두려 웨서 푸 누이다.” 長子 | 들고 “세흘 두려 드러오리” 헤야눌(월석 8, 94b)
- b. 善慧 다수 고줄 비호시니 다 空中에 머드라 美譽 두외어늘 後에 두 줄기를 비호니(월석 1, 13-14)
- c. 디나진 劫 일후미 莊嚴劫이오 이杰 劫 일후미 賢劫이오…이 賢劫 첫 부티는 拘樓孫如來시고 둘차힌 拘那含牟尼佛이시고…네차힌 釋迦牟尼佛 이시니 우리 스스로 네갓 부페시니라(월석 1, 50-51)
- d. 世界 처럼 잃 저괴 大梵天이 못 묻져 일오 버거 너느 梵輔天과…次第로 일오 버거 下界에 大風輪이 넓어늘(월석 1, 38-39)

(42)는 수량표시어가 앞에 오는 명사구의 수량을 가리킴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루어 이야기를 형성하는 예이다. 수량표시어는 사물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대용어와 부분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자립대용어에 수량표시어를 넣은 것도 이런 기능상의 유사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³⁷⁾ (a)는 앞의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언급된 중, 속인, 여자의 수를 장자가 뒤의 이야기에서 숫자로 가리킴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룬 예이다. (b)는 셋째 절의 ‘두 줄기’가 둘째절의 꽃대를 뛰어넘어 첫째절의 ‘다수 꽃’과 이어져 명명적 연쇄를 이루고 있다. (c)는 ‘現劫’의 부처의 이름을 서수에 기대어 차례로 해야리는 예인데 수량어가 처음 도입된 명사구 ‘현겁’과 명명적 연쇄를 이루고 있다. (d)는 ‘못 처럼’과 ‘버거’라는 서수상당어에 기대어 세계생성이라는 명제와 명명적 연쇄를 생성의 차례를 표시한 예이다.

37) 수사와 대명사의 기능적 특수성에 대하여는 최현배(1971:226, 245)를 보라. 수사의 대용적 특수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수사를 대명사에 넣기도 한다. 이희승(1949)을 보라.

이루고 있다. 수량표시어도 앞의 대용어와 같이 이야기의 기제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 기능적 등가성에 기댄 명명적 연쇄

중세어에서도 현대어의 (7)과 같은 기능적 등가성에 기댄 명명적 연쇄를 찾을 수 있다.

- (43) a. 釋迦如來 부테 몬 두외야 겨삶 젠 일후미 善慧이시고 功德이 乎미
초사 捕處 두외사 究率天에 겨삶 젠 일후미 聖善이시고 죠 일후미
護名大士 | 리시니(월석 2, 8b)
b. 大瞿曇이 슬허 뾰리여 檮에 너삽고…널오더…<이 道士 | 精誠이 至極
호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룸 두외에 乎시리라>(월석 1, 7-8)

(43)은 지문과 독화에서 명사구가 기능적 등가성에 기대어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예이다. (a)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석가모니의 이름이 기능적 등가성에 기대어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예이다. 석가여래가 부처가 되기 전은 이름이 ‘선혜’였고 공덕이 충만하여 도솔천에 있을 때는 ‘성선’과 ‘호명대사’의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세 이름은 모두 같은 대상이 상황에 따라 달리 불려진 것으로서 이들 사이에는 기능·실용적 의미의 등가성만 확인된다. (b)는 대구담이 죽은 보살의 시신을 ‘이 道士’란 명사구로 표현한 말인데 보살 또는 그 시신과 ‘道士’ 사이에는 어떤 어휘적 의미의 등가성도 찾을 수 없다. 대구담은 화살에 맞아 죽은 보살을 불도를 닦아 깨달은 사람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道士’란 명사구를 사용한 것이다. 상황이나 특수한 인식작용으로 이루어진 명사구도 앞의 이야기나 절에 도입된 명사구와 연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 (44) a. 王이 盟誓하야 드로리라 乎신터 夫人이 술보더 “…王이 네 아드를 내^{티쇼서”} 王이 너른샤더(월석 2, 5-6)
b. 그여 龍王이 우리 合掌하야 世宗의 請호수보더 “如來 長常 이어고
겨쇼서…”(월석 7, 48-49)

38) 월인석보 서문에 나오는 다음 ‘先考’는 훨씬 앞에 나온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석가보를 찬술하라는 대목의 명사구 ‘世宗’과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예인데 두 명사구는 상황의 특수성을 공통기반으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

忿호더 이 月印釋譜는 先考 지스산 거시니(월석 서, 16a)

c. 大瞿曇이…물조보더 “그디 子息 업더니 브스 罪오?”

菩薩이 對答하샤더 “호마 주글 내어니 子孫을 議論하리여”(월석 1, 7a)

(44)는 지문과 대화 사이에서 명사구가 기능적 등가성에 기대어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예이다. (a)는 앞뒤의 지문에 나와 있는 주어명사구 ‘王’이 ‘夫人’의 말에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데 결으로 보면 단순한 명사구의 반복이라 하겠으나 자세히 보면 그 기능이 다르다. 지문에서는 3인칭으로 쓰였으나 대화에서는 2인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곧 대용대명사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다. (b)도 비슷하다. 대화의 ‘如來’는 지문의 ‘世尊’과 유의적 관계에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2인칭의 기능을 띠고 있다. 어휘적 차질이 공통되고 지칭대상이 같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기능적 등가성에 근거한 명명적 연쇄로 보기로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휘적 등가성에 기댄 명명적 연쇄는 우선적으로 기능적 등가성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충분조건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높임의 문법적 절차가 발달되지 않은 언어라면 위의 두 경우는 대명사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c)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대구담은 ‘菩薩’을 2인칭대명사 ‘그디’로 표현하였고 보살은 자기를 1인칭 ‘나’로 표현하였다.³⁹⁾ 이 경우는 대명사구가 지문의 명사구 ‘菩薩’과 기능적 등가성을 이룸으로써 명명적 연쇄를 이룬 예이다. (43), (44)를 통하여 기능적 등가성에 기댄 명명적 연쇄도 앞의 의미상의 등가성에 기댄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형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39) 중세어에는 명사구가 2인칭뿐만 아니라 1인칭에 대용되는 일도 있었다.(고영근 1987:66)을 보라.

40) 필자는 고영근(1990)의 예문 (4)에서 ‘학생들…인식이, 명석이, 우찬이’와 같이 상위어와 그 하위구성원인 고유명사가 통합되어 이야기를 형성할 때에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상의 등가성에 기댄 명명적 연쇄로 보았으나 잘못임을 고쳐 둔다. 이는 화자·청자의 공통된 인식체계나 통보상의 특수성에 기대어 둑일 수 있는 기능적 명명의 예이다.

IV. 複합—간추림과 용용분석—

지금까지 필자는 이야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접근방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중세어의 대표적 통사자료인 석보상절의 “이야기” 형성에 이르기까지 국어의 이야기에 관련되는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여 보았다. 논의된 바를 간추리면서 특히 통사적 절차와 의미·기능적 절차가 이야기 형성에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앞에서 시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10)의 예문을 중심으로 중세어의 이야기 문제를 총괄해 보고자 한다.

1. 이야기는 문장의 상위단위로서 그것에 다가서는 길에는 명제적 견해와 동태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석보상절과 같은 전기물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동태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되 상보적인 관점에서 양자의 장점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야기의 생성규칙은 문장중심문법의 구절구조규칙을 확대한 것이다. 이야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으로 성립되고 문장은 다시 명사구와 동사구로 성립된다.

3. 현대어의 이야기 형성수단은 크게 통사적 절차와 의미·기능적 절차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에는 접속부사와 보조사를, 후자에는 어휘적 등가성에 바탕을 둔 단순반복, 대용어에 기댄 반복, 상위어, 하위어, 유의어에 기댄 명명적 연쇄와, 화·청자의 공통된 인식세계나 구체적인 통보상황에서 추출되는 명명적 연쇄의 둘을 들 수 있다.

4. 중세어의 이야기 형성수단은 원칙적으로 현대어와 차이가 없다. 곧 통사적 수단과 의미·기능적 수단에 기대어 이야기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형성과정에서 차이나는 점이 적지 않다.

(1) 통사적 절차에는 논리적 접속부사, 시간적 접속부사, 수식적 접속부사와 같은 접속부사와, 보조사를 확인 할 수 있다.

가. 논리적 접속부사에는 ‘그러나, 그러면, 그럴싸, 이럴싸’ 등이 확인되며 현대어의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다. 논리적 접속부사는 현대어와 같이 종결형으로 된 이야기나 문장을 이어 주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분 독립성이 강한 연결형 뒤에서 나타난다.

나. 시간적 접속부사에는 동시성과 계기성을 떤 두 동아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그때’가 보편적이며 그 밖에 ‘그제, 그저니, 이嬖, 그時節, 그 나래’ 등도 보인다. 후자에는 ‘그 後에’ 등이 있다. 시간적 접속부사는 종결형 뒤에 쓰이는 일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 독립성이 강한 연결형 뒤에 나타난다. 이점 앞의 논리적 접속부사와 공통성을 띠고 있다. 동시적 시간접속부사는 저본불경의 ‘爾時, 是時’ 등의 한자어휘를 번역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일도 눈에 띄인다. 시간부사의 결여현상은 종결형과 연결형이 이야기와 문장의 보조적 경계 표지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수식적 접속부사에는 대표적으로 ‘또’를 들 수 있다. 이 역시 종결형과 연결형에 모두 쓰이므로 이야기와 문장의 경계표지로 이용될 수 있다.

라. 보조사 기운에서 ‘온/눈’은 현대어만큼 이야기 형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띠고 있지 않다. 낡은 정보를 표현할 때에 이 보조사를 쓰는 일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은 주격표지 ‘이’를 그대로 쓰거나 내용어 ‘그’에 기대는 일이 많다. 그러나 ‘도’는 현대어와 같이 이야기형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이 역시 앞의 논리적 시간접속부사나 시간적 접속부사와 같이 종결형과 연결형 뒤에 두루 나타난다.

(2) 의미·기능적 절차에는 현대어와 같이 의미상의 동가성과 기능적 등가성에 기댄 두 종류의 명명적 연쇄가 있다.

가. 중세어에서도 현대어와 같은 의미상의 등가성에 기댄 여러가지 명명적 연쇄를 발견할 수 있다. 고유명사나 보통명사의 단순한 반복은 현대어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중세어에 3인칭대명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 중세어에도 의존적 대용과 자립적 대용이 있다. 전자는 지시관형사를 앞세운 명사구를, 후자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생략된 명사구와 수량표시어를 각각 가리킨다. 지시대명사에는 생략된 대명사구 e도 포함된다. 의미상의 절차도 앞의 통사적 절차와 같이 종결형과 연결형 뒤에 두루 확인된다.

나. 중세어에서도 기능적 등가성에 기댄 명명적 연쇄를 찾을 수 있다. 같은 대상이 상황에 따라 달리 불리는 이름은 모두 기능적 등가성에 기

댄 명명으로 간주하였다. 석가모니의 여러가지 이름들이 서로 명명적 연쇄를 이루어 이야기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어휘적 자질이 공통되더라도 기능이 다르면 기능적 등가성에 기댄 명명적 연쇄로 간주하였다. ‘王’은 3인칭과 2인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예가 바로 그것이다. 기능적 등가성에 기댄 연쇄도 종결형과 연결형을 매개로 하여 이야기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3) 이상 살펴본 통사적 절차와 의미·기능적 절차는 어느 정도 병행되는 면을 보여 준다. 종결형과, 독립성이 강한 연결형 뒤에 분포된다 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통사적 절차는 이야기나 문장의 경계의 표지로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논리적 접속부사와 시간적 접속부사가 그런 면이 강하다. 이 표지를 끈으로 삼아 크고 작은 이야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명적 연쇄는 성격이 다르다. 그 놓이는 자리가 이야기나 문장의 첫머리뿐만 아니라 가운데도 올 수 있으며 통사적 기능 또한 가변적이다. 이런 점에서 명명적 연쇄는 통사적 절차에 비하여 경계기능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세어의 이야기 단위를 세움에 있어서는 먼저 통사적 절차에 따라 이야기나 문장의 경계를 긋고 다음으로 명명적 연쇄를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10)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을 풀어 보기로 한다.

‘그뼈’는 (2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야기 경계의 표지다. 수식 범위는 이야기 전체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23c)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종결된 하나의 이야기 뒤에 ‘그뼈’가 쓰였기 때문이다. ①과 ②의 ‘이 양으로’는 (39)에서 보인 의존적 내용의 예이다. ①의 그것은 앞선 이야기에 나오는 부처의 설법내용을 가리키고 ②의 그것은 ①의 내용을 가리킨다. ②에서 주어명사구가 생략된 것은 ①에 이미 주어명사구 ‘世尊’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을 필자는 (41)에서 대명사구 e 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앞의 명사구와 명명적 연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②는 ‘이 양으로’가 두번 쓰였고 (32)에서 확인한 수식적 접속부사 ‘또’와 같은 테두리에 드는 ‘도로’가 쓰였다. 또 이곳에는 이야기 및 문장경계의 표지 역할을 하는 수량표시어 ‘닐굽 번, 세 번,

스물네 디위’가 나타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②는 7개의 문장으로 더 잘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기댄다면 ①도 더 조겔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 ‘니르샤, 뵈시고, 겨샤, 오르샤’를 경계로 하여 5개의 문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 활용형에 나타나는 어미가 모두 독립성이 강한 연결어미이며 그 뒤에는 또 접속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42)에서 확인한 바 있는 이야기나 문장 경계의 표지 역할을 하는 ‘세 번’, ‘호 多羅樹 노피’와 같은 수량 표시어가 쓰였다. 애초에 ①과 ②의 경계를 ‘호시고’와 ‘이 양으로’의 사이로 잡았던 것은 (25d)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가 독립성이 강한 연결어미로서 시간적 접속부사 ‘그때’가 쓰일 수 있는 자리이며 동시에 의존적 대용어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②와 ③의 경계를 ‘호야시늘’의 뒤로 잡았던 것은 이 자리에 (24a)(25c)(26c)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시간적 접속부사가 쓰일 수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통사적 결차와 의미·기능상의 결차를 바탕으로 할 때 (10)은 12개의 문장으로 세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0)의 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름 붙인 팔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¹⁾

(10') [T 그의 (S₁ 世尊이 이 양으로 세번 니르샤)S₁ S₂(e 眞金身을 ~뵈시고)S₂ (S₃ e 즉자히~겨샤)S₃ (S₄ e 虛空애 호 多羅樹 노피를 오르샤)S₄ (S₅ e 니르샤더 “너희~보라” 호시고)S₅ (S₆ e 이 양으로 널굽 多羅樹 노피를 오르샤)S₆ (S₇ e 널굽번 니르시고)S₇ (S₈ e 도로~안조사)S₈ (S₉ e 조 니르시니)S₉ (S₁₀ e 이 양으로 세번 오르누리샤)S₁₀ (S₁₁ e 두루 모다 스물네 디위를 大衆드려 니르샤더 a “내~호노니 너희둥히~보라” b “e 優曇花 鮮 흥야 맷나니 어려보니 너희둥히~보라” c “e 늑외야 몸 보리니 너희 업계 호라” d “e 나를 滅度타하면 내 弟子 | 아니라” 호야시늘)S₁₁ (S₁₂ 百億萬象이~듣즈불니라)S₁₂]_T

〈주의〉 T는 이야기의 경계를, S는 문장의 경계를, 큰팔호는 이야기 단위를, 작은팔호는 문장단위를 각각 표시한다.

41) 필자는 고영근(1990)에서 월인석보 권 1의 〈瞿曇氏興家記〉를 종결형 중심으로 끊어 이야기 형성의 기체를 밝히고 그 구성문제를 팔호와 나무 그림으로 표시한 바 있다.

한편 (10)의 한 단위의 이야기를 나무모양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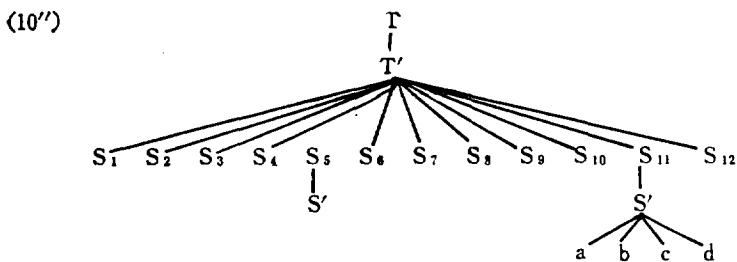


그림 곡대기의 T는 〈如來涅槃記〉라는 한 소품임을 뜻하고 T'는 (10)의 예가 큰 이야기 T의 하위단위인 작은 이야기임을 표시한다. S₅와 S₁₁ 아래 S'를 둔 것은 두 문장이 대화를 안고 있다는 뜻이며 S₁₁의 S' 아래 a…d를 둔 것은 그 대화가 문장종결법을 기준으로 할 때 4개의 문장 단위로 끊을 수 있다는 뜻이다.

(10), (10'), (10'')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석보상절의 문장구성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문장은 연결어미를 끈으로 삼아 길게 이어진다는 점이다.⁴²⁾ 이들은 통사적 기준과 의미·기능적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독립된 문장 단위로 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세어의 대화나 득화는 인용문의 모습을 띠고 지문에 안겨 있다는 것이다. 현대문장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 참여자가 한번 소개되면 그 다음부터는 따옴표 속에 묻혀서 제시될 뿐이고 대화참여자를 밝히지 않는다.⁴³⁾ 문장 5와 문장 11이 그러한 예인데 인용형이 앞서고 인용동사가 덧붙는 일도 있고 인용동사가 생략되는 일도 있으며 흔하지는 않지만 현대어와 같이 인용동사만으로 성립되는

42) 김종택(1983)에서는 중세어의 문장 길이가 긴 까닭을 문장을 끊는 기술이 부족하고 번역과정에서 한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다.

43) 하르베크(1979, 1980)에 기대면 인용구문을 포함한 표현을 상위언어(Metasprache)라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연스런 대화나 득화를 대상언어(Objektsprache)라 하여 양자의 성격을 논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석보상절의 대화자료는 대부분 상위언어의 태두리에 속한다. 이런 눈으로 중세어의 통사자료를 바라보는 태도도 지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도 있다.⁴⁴⁾ 이들은 모두 일차적으로 지문으로 보아 문장 단위로 끊고 다시 설명부분과 대화부분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꼽아야 한다. 중세어의 문장구성이 복잡해 보이는 것은 문장종결의 값을 지니고 있는 독립성이 강한 연결어미에 기댄 구성이 많다는 것과 대화자료가 지문에 묻혀 있다는 두 가지 사실에 말미암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런 복잡한 중세어의 통사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1)의 이야기의 생성구칙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문장을 최대단위로 삼기보다는 한 단위 높은 이야기를 설정하는 것이 분석을 수월히 할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이득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필자가 이야기 형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통사적 원리와 의미·기능상의 원리, 그리고 이에 기댄 석보상절에 대한 응용적 분석은 음운론이나 형태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중세어의 통사론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이와 상관하여 어휘론과 실용론 연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뜻있는 사람들의 동참과 비판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1년 1월 16일에 마지막 손질을 하다.)

참고문헌*

* 이 참고문헌에서는 본문과 각주에서 한글로 적은 성명 또는 성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방식을 따랐다. 단 서양인이나 일본인의 경우는 괄호 안에 본래의 성이나 성명의 표기문자를 밝히었다. 본문이나 각주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하여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복수(1961), 문장의 문법학적 고찰, 논문집 4(청구대학).

_____ (1962), 문장의 개념, 논문집 5(청구대학).

고영근(1961),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한 비교, 한글 128.

_____ (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_____ (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_____ (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_____ (1990), 텍스트이론과 국어통사론 연구의 방향, 배달말 15(배달말학회)

44) 중세어의 인용구문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현희(1986)을 보라.

- 김민수(1955), “국어문법”, 대학국어(양재연·김민수 공저), 영화출판사.
- _____ (1960), 국어문법론연구, 통문관.
- _____ (1986), 주시경연구(증보판), 탑출판사.
- 김영배(1972), 석보상절 23-4 주해, 일조각.
- 김완진(1976), 노걸대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연구원.
- 김정아(1984), 15세기 국어의 대명사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62.
- 김종택(1983), 국어표현구조변천연구, 동양문화연구 10(경북대학교).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도끼에다(時枝誠記)(1950), 日本文法：口語篇(岩波全書), 岩波書店.
- 드레슬러(W. Dressler)(편)(1978), Current Trends in Textlinguistics, de Gruyter.
- 롱에이커(R.E. Longacre)(1979), The Paragraph as a Grammatical Unit, in: T. Givon (ed.), Syntax and Semantics 12, Academic Press.
- 루코프(F. Lukoff)(1986), The Use of Tenses in Korean Written Narrative, in: Nam-Kil Kim (ed.), Studies i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East Asian Study Cent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민영규(1956), 개체, 월인석보 제9 제10(국고총간 제6), 연희대학교 동방학 연구소.
- _____ (1963), 개체, 월인석보 23(영인), 동방학지 6.
- 박금자(1988), 중세어 문헌의 협주의 성격, 주시경학보 2. (주시경연구소 편, 탑출판사 발행)
- 비타콜로나(L. Vitacolona)(1988), ‘Text’/‘Discourse’ Definitions, in: J.S. Petöfi (ed.), Text and Discourse Construction, de Gruyter.
- 사재동(1975), 월인석보의 문학적 연구, 인문과학논문집 2.6(충남대학교).
- _____ (1989), 월인석보의 강창문학적 성격, 제4회 3개 학회 합동발표논문, 국어국문학회, 한국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회.
- 심재완(1959), 해설, 석보상절 제11, 어문학회.
- 윤석민(1989), 국어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국어연구 92.
- 이동림(1959), 주해 석보상절, 동국대학교 출판부.
- 이윤표(1989), 국어 공법주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젠베르크(H. Isenberg)(1974), Überlegungen zur Texttheorie, in: W. Kallmeyer et al. (Hrsg), Lektürekolloq zur Textlinguistik, Band II, Athenäum.

- ____ (1977), *Text vs Satz*, in: Fr. Daneš/D. Viehweger (Hrsg), *Probleme der Textlinguistik II*, *Studia Grammatica XVIII*.
-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한신대학).
- ____ (1988), 중세어의 청원구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연구 24.3*.
- 이호권(1987), 법화경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국어연구 78*.
- 이회승(1949), 초급국어 문법, *박문출판사*.
- 장경희(1980), 지시어 ‘이’, ‘그’, ‘저’에 대한 의미분석, *어학연구 16.2*. (고영근·남기심, 공편, 국어의 통사·의미론, *답출판사*, 1983에 실림).
- 장석진(1972), *Deixis의 생성적 고찰*, *어학연구 8.2*.
- ____ (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어학연구 9.2*. (별권).
- ____ (1985), *화용론연구*, *답출판사*.
- 전병선(1988), 문장 이상의 단위인 문장군에 대하여, *조선어연구 2*(연변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 정렬모(1956), 조선어문법에 대한 주시경선생의 견해, *조선어문 6*(주시경학보 4, 1989에 다시 조판하여 실음).
- 정희자(1987), *A Study of the Function of Tense and Aspect in Korean Narrative Discourse*,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Muncie, Indiana (한신문화사 복사출판).
- 주시경(1910), *국어 문법*, *박문서관*.
- ____ (1911), *조선어 문법*, *신구서림*.
- 주신자(1980), *The Referential Structure of a Korean Folktale: The Story of Shimchung*, *어학연구 16.2*.
- ____ (1981), *Aspects of Korean Narrative*,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____ (1971), *우리말본(네번째고침)*, *정음문화사*.
- 최호철(1989), 주시경과 19세기의 영문법, *주시경학보 4*.
- 칼베르肯퍼(H. Kalverkämper) (1981), *Orientierung zur Textlinguistik*, Niemeyer.
- 톨민(R.S. Tolmin),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Benjamins.
- 피에 베거(D. Viehweger)(1977), *Zur semantischen Struktur des Textes*, in: Fr. Daneš/D. Viehweger (Hrsg), *Probleme der Textlinguistik II*, *Studia*

Grammatica XVIII.

- _____ (1978), Struktur und Funktion nominativer Kette im Text, in: W. Motsch(Hrsg), *Studia Grammatica XVII*.
- 하르베크(R. Harweg) (1968=1979), *Pronomina und Textkonstitution*, 2. verbesserte Aufl., Fink.
- _____ (1978), Substitutional Textlinguistics, in: 드래슬러(Hrsg)(1978)
- _____ (1979), Metasprachenkonzept, ZPSK 32.2.
- _____ (1980), Metasprache und Objektsprache als langue und parole, *Acta Linguistica* 30(3-4).
- _____ (1988), Sentence Sequences and Contextual Connexity, in: J.S. Petöfi (ed), *Text and Discourse Constitution*, de Gruyter.

Zusammenfassung

**Zum Verhältnis von Satz und Text im
Mittelkoreanischen***

Yong-Kun Ko
(Seoul National-Universität)

Beim Kohärenzmittel eines Textes gibt es ein syntaktisches und ein semantisch-funktionales Prinzip. Solche syntagmatische Mittel können nicht nur auf das gegenwärtige Koreanische, sondern auch auf syntaktische Materialien des Mittelkoreanischen angewendet werden. Beim Bildungsmittel eines auf dem syntaktischen Prinzip beruhenden Textes gibt es logische Konjunktionen, temporale adverbale Konjunktionen, attributive adverbale Konjunktionen und Delimiter. Die darunter an

* Diese Arbeit ist entstanden mit Hilfe eines Stipendiums der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1984, 1988) sowie durch Sachbeihilfen der Asan-Stiftung (1986). Bei der Abfassung dieser Arbeit gab mir Herr Professor Dr. R. Harweg (Bochum) viele Ratschläge. Ich bin ihm sehr dankbar für seine freundliche Unterstützung.

der Textbildung aktiv beteiligten Elemente sind die logischen und temporalen adverbalen Konjunktionen. Wenn sie nach einer Finalendung vorkommen, bilden sie einen noch größeren Text und wenn sie nach einer Verbindungsendung von stärker Unabhängigkeit vorkommen, bilden sie einen kleinen Text. Die attributiven adverbalen Konjunktionen und Delimiter nehmen auch eine ähnliche Funktion an. Das sogenannte semantisch-funktionale Prinzip bedeutet ein Verfahren, wobei zwei oder mehrere nominative Ausdrücke auf Grund von der semantisch-funktionalen Äquivalenz durch Formung einer nominativen Kette einen Text bilden. Die sich auf der Äquivalenz vom Standpunkt der Semantik stützende nominative Kette bedeutet die Bildung eines Textes durch die Formung einer Kette auf Grund der Gemeinschaftlichkeit der Lexemmerkmal. Hier gibt es ein abhängiges und unabhängiges Substitut sowie die einfache Wiederholung der Nomen. Die einfache Wiederholung der Nomen kommt im Mittelkoreanischen viel häufiger vor als im gegenwärtigen Koreanischen, weil das Pronomen der 3. Person nicht entwickelt ist. Beim abhängigen Substitut gehört das Demonstrativpronomen mit der nachkommenden Nominalphrase an und beim unabhängigen Substitut gehören das Demonstrativpronomen, das demonstrative Deskriptivverb, das Demonstrativadverb und die leeren Nominalphrase den Zahlwörter an. Die sich auf der funktionalen Äquivalenz stützende nominative Kette unterscheidet sich zwar in der Lexemveranlagung, aber bedeutet die Bildung eines Textes durch die Formung einer nominativen Kette infolge der Erkenntniswelt vom Sprecher und Hörer oder der Besonderheit des Kommunikationsstandpunktes. Die verschiedenen Bezeichnungen von Buddha werden entsprechend der Situation zwar anders benannt, aber da man die Tatsache erkennt, daß der Sprecher und Hörer damit die gleiche Person bezeichnen, kann es eine gleiche nominative Kette geben. Auch wenn die Bezeichnung gleich, aber die Funktion verschieden ist, wird es als nominative Kette gesehen, die sich auf funktionale Äquivalenz

stützt. Das sogenannte Nomen "König", das in der 3. und 2. Person benutzt wird, kann als solches Beispiel bezeichnet werden. Die sich auf die Äquivalenz vom semantisch-funktionalen Standpunkt stützende nominative Kette, die an der Finalendung und Verbindungsendung angehängt wird, beteiligt sich auch an der Bildung einer großen und kleinen Erzählung. Ihre Funktion ist aber nicht so aktiv wie in dem vorigen syntaktischen Verfahren. Bei der Untersuchung der syntaktischen Struktur des repräsentativen syntaktischen Materials (*Sögbosangchöl*) des Mittelkoreanischen ist es ratsam, zuerst entsprechend dem syntaktischen Verfahren die Text oder den Satz als Einheit zu untersuchen und die nominative Kette nebenbei zu berücksichtigen. Auf Grund des oben angeführten Faktum kann die Tatsache festgestellt werden, daß im Mittelkoreanischen die größte Einheit der Syntax nicht der Satz, sondern der Text ist.